

조선 말기 유신 개념의 역사적 이해*

— 고종·순종 시기 『승정원일기』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노 관 범**

[초 록]

이 글은 근대전환기 조선에서 발생한 유신 개념의 정치화에 대해 탐구한 것이다. 고종, 순종 시기 『승정원일기』의 유신 복합어를 추출하여 유신 복합어의 추세와 구조, 그리고 다양한 어휘 현상에 대한 역사적 독해를 추구하였다. 유교 경서에서 유래하는 고전적인 유신 개념, 그리고 조선 왕정의 수행에 따른 관례적인 유신 개념, 그리고 조선의 정치 변동에 따른 근대적인 유신 개념을 분별하였다. 고전적인 유신 개념과 관례적인 유신 개념에서 근대적인 유신 개념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유신 개념의 정치화라는 맥락에서 접근하였다. 중국적으로 유신과 문명의 구도에서 추구된 문명화로서의 유신이라는 새로운 용법의 출현을 유신 개념의 근대적 변모로 평가하였다.

* 이 연구는 200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8-361-A00007).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부교수

주제어: 유신, 조선, 승정원일기, 문명, 정치화

Yusin, Joseon, Seungjeongweonilgi (the Diaries of the Royal Secretariat), Civilization, Politicization

1. 머리말

이 글은 조선말기 고종·순종 시기의 유신에 관한 개념사적 연구이다. 이 시기 조선의 유신 개념은 동시기 일본의 메이지유신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하기 쉽다. 조선과 메이지 유신이라는 구도에서 유력한 테마는 견문과 지식의 차원에서 조선의 메이지 일본 체험 또는 조선의 메이지 유신 이해와 같은 문제일 수 있다. 1876년 조선 정부는 메이지 유신을 거친 일본 정부와 수호조규를 체결하였고, 이후 일본에 수신사와 시찰단을 파견하여 메이지 일본을 직접 견문하고 일본의 근대화를 현지에서 체감하였다. 수신사와 시찰단의 파견은 조선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한 메이지 일본의 현장적 이해를 충족시켰다. 메이지 일본에 관한 역사적 지식의 전달에 기여하는 문헌들도 조선에 소개되었다. 청말 황준센(黃遵憲)의 『일본국지(日本國志)』와 강유웨이(康有爲)의 『일본변정고(日本變政考)』가 조선 지식인에게 얼마나 읽혔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적어도 메이지 시기 시게노 야스즈구(重野安繹)의 『일본유신사(日本維新史)』와 일본 잡지 『태양(太陽)』의 『명치삼십년사(明治三十年史)』를 한역한 뤼진(羅晉)의 『일본유신삼십년사(日本維新三十年史)』는 대한제국기 한국 사회에 소개되었고, 특히 후자는 『황성신문』에서 장기간 국한문으로 번역, 연재되었다.¹⁾

메이지 유신은 견문과 지식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개념과 관

1) 黃遵憲의 『日本國志』와 康有爲의 『日本變政考』에 대해서는, 마용, 「메이지유신에 관한 청말 관신(官紳)의 인식」(박삼헌 외(2010), 『메이지유신, 동아시아의 기억』, 서울: 지금여기)이 참조된다. 『태양』의 「明治三十年史」와 羅晉의 「日本維新三十年史」, 그리고 『皇城新聞』의 「日本維新三十年史」에 대해서는, 이예안(2014), 「대한제국기 유신의 정치학」, 『개념과 소통』 14,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과 이예안(2015), 「다카야마 린지로(高山林次郎) 외 11명, 『일본유신 30년사(日本維新三十年史)』」, 『개념과 소통』 15,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그리고 허재영(2015), 「지식 수용의 차원에서 본 『황성신문』 『일본유신30년사』 역술 과정과 그 의미」, 『한민족어문학』 70, 한민족어문학회가 참조된다.

념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 메이지 유신이 동아시아의 성공적인 근대화 모델로 간주되고 이와 상응하는 체제 변혁의 시도가 일어남에 따라 유신이라는 어휘는 근대전환기의 유력한 정치적 언어로 기능하게 되었다. 사실 메이지 일본의 역사적 변화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메이지 유신이 사용되기 이전 유교 문명에서 친숙한 고전적인 유신은 『시경』의 ‘주수구방(周雖舊邦), 기명유신(其命維新)’이었는데, 이 고전적인 유신은 메이지 유신으로 인해 개념의 변화를 겪었다. 이와 관련하여 시게노 야스즈구(重野安繹)는 『일본유신사(日本維新史)』의 「서(序)」에서 “메이지 중흥을 세칭 ‘복고’라고도 하고 ‘유신’이라고도 하는데, 복고란 대정(大政)이 조정에 돌아갔다는 말이고 유신이란 온갖 제도를 개혁한다는 말이다. 옛날 주나라 문왕이 왕업을 창시하자 시인이 ‘주수구방, 기명유신’이라 노래했는데, 우리는 그 글자를 쓰되 그 뜻을 달리 한다…메이지의 개혁은 서양에서 장점을 취한다…우리는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도모한다.”²⁾고 말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구방유신(舊邦維新)’의 연속에서 ‘기구도신(棄舊圖新)’의 단절로 유신의 색채를 바꾸고 이 달라진 빛깔의 유신으로 서양 근대국가를 추구한 것이다.

그렇다면 전환기 조선 사회에서 유신 개념은 어떠한 변화를 겪었을까? 고전적인 유신 개념과 근대적인 유신 개념의 사이에서 조선 왕정의 군신 간의 정치적 언어는 어떻게 배열되어 있었을까? 이와 같은 물음을 안고 이 글은 조선 정치의 현상이 기록된 『승정원일기』에서 유신의 용법을 연구해서 전환기 조선에서 발생한 유신 개념의 정치화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근대 동아시아의 체제적 변혁을 위한 특정한 개념으로서 ‘일본유신(日本維新)’이 전파되기 앞서 조선 내부에서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왔던 전통적인 유신 개념에 유의하여, 고종·순종 시기 『승정원일기』에서

2) 重野安繹, 『日本維新史』 「序」. “明治中興, 世人稱曰復古, 又曰維新, 復古者謂大政歸朝, 維新者謂百度更張. 在昔周文創始王業, 詩人歌之曰周雖舊邦其命維新, 我用其字而異其義…明治之更張採美歐美…我棄其舊而新之圖…”

표출된 정치 담론으로부터 유신 개념의 전환기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근대전환기의 정치사회적 개념을 탐구하기 위해 신문·잡지 같은 근대 매체를 선택하지 않고 『승정원일기』 같은 관서 일지를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일단 유신 그 자체가 유교 경서에서 유래하는 고전적인 개념인 동시에 조선 사회에서 사용된 역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조선 개념의 정치적 현상이 생생하게 표현된 『승정원일기』의 사료적 가치를 최대한 존중했다는 의미가 있다. 동시에 조선의 전환기를 좁게 갑오개혁 이후로 한정하지 않고 넓게 고종 즉위 이후부터 설정할 경우 상대적으로 넓은 이 기간을 포괄할 수 있는 연대기적 질서를 제공하는 문헌으로 『승정원일기』보다 적실한 정치사 문헌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이 글은 『승정원일기』의 이와 같은 특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검토할 것이다. 먼저 유교 경전에서 유신의 고전적인 의미와 조선 말기 유신 복합어의 추세와 구조를 살펴보고, 이어서 유교 정치와 연결된 유신의 관례적인 어법, 왕정의 변화와 유신의 현재화, 체제의 변혁과 유신의 정치화를 살펴본 후 최종적으로 문명화를 추구하는 방향에서의 유신 개념의 정립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메이지 유신을 매개로 하는 근대적인 유신 개념의 조선 유입에 관한 역사적인 이해가 올바르게 형성되는 데 보탬이 있기를 희망한다. 즉, 메이지 유신으로부터 근대적인 유신을 조망하기에 앞서 조선의 정치 개념으로서 유신에 관한 역사적인 이해를 충분히 구축한 위에 유신 개념의 전환기적 성격이 논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유신 복합어의 구조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의 유신은 『시경』의 ‘유신(維新)’과 『서경』의 ‘유신(惟新)’을 중심으로 하였다. 『시경』에는 ‘주(周)나라가 비록 오래된 나라이나 천명은 새롭도다[周雖舊邦, 其命維新]’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다.³⁾ 이는 주공이 성왕에게 문왕의 덕을 깨우쳐 준 것으로 주나라가 후직(后稷)이 봉해진 이래 오랜 세월이 지나 문왕에 이르러 새로운 천명을 받았음을 가리킨다. 맹자(孟子)는 등문공(滕文公)에게 『시경』의 이 구절을 들려주며 등문공도 힘써 왕정을 실천하면 주 문왕처럼 나라를 유신할 수 있다고 권유하였다.⁴⁾ 주희(朱熹)는 『대학장구』에서 이 구절을 『대학』의 3강령의 하나인 신민(新民)과 관련하여 배치하고, 주 문왕이 자신의 덕을 새롭게 하고 백성에게 덕을 미쳐서 천명을 받았다고 설명하였다.⁵⁾ 신덕(新德), 신민(新民), 그리고 신명(新命)으로 이어는 ‘유신’의 정치적 함의는 왕정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서경』의 ‘유신’ 역시 이와 같은 신덕과 신명을 중시했는데, 이를테면 ‘이제 사왕(嗣王)이 새로 천명을 받으려면 덕을 새롭게 하여야 할 것이니[惟新厥德]’라는 구절이 이를 가리킨다.⁶⁾ 『시경』에서 말하는 ‘구방유

3) 『詩經·文王』. “文王在上, 於昭于天, 周雖舊邦, 其命維新.”

4) 『孟子·滕文公上』. “詩云, 周雖舊邦, 其命維新, 文王之謂也. 子力行之, 亦以新子之國.”

5) 『大學章句』. “周國雖舊, 至於文王, 能新其德以及於民而始受天命也.” : 『대학장구』의 이와 같은 해석은 조선 사회에 널리 통용되었다. 조선 憲宗朝의 儒臣 金學性은 ‘周雖舊邦, 其命維新’의 뜻을 묻는 국왕에게 주나라가 后稷 이래 천여년 된 오랜 나라인데 文王에 이르러 천하에 明德을 미치고 백성에게 政教를 가해 천명을 받아 이를 일러 ‘雖舊維新’이라 한다고 대답했다(『承政院日記』 憲宗 2년 11월 17일(丙申) “上曰, 周雖舊邦, 其命維新之意, 何也? 學性曰, 此在大雅文王章, 而周自后稷之封邇, 積德累仁, 千有餘年, 則周之有邦, 厥惟久矣, 而至文王之時, 明德及於天下, 政教加於百姓, 終至天與而人歸, 則周之受命, 自此始矣, 此所謂雖舊維新之謂也.”).

신'의 주체가 주 문왕이었고 그것이 주공에 의해 후왕을 위한 역사적 교훈으로 전해졌듯이 여기 『서경』에서 말하는 '유신궐덕'의 주체도 선왕을 계승하는 후왕으로 상정되어 있다. 따라서 『시경』의 '구방유신'이나 『서경』의 '유신궐덕' 모두 선왕의 왕정을 계승하는 후왕의 새로운 왕정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서경』에는 '옛날에 물든 나쁜 풍습을 모두 함께 새롭게 하겠다[咸與惟新]'라는 구절이 있는데,⁷⁾ 이는 사악한 무리의 괴수만 처벌하고 나머지는 자신하도록 용서하는 군주의 관용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나쁜 풍습에 물든 백성을 교화한다는 교속(矯俗)의 함의를 갖는다. 이는 정치적 사면이나 풍속의 교화와 연결된 특정한 맥락에서 힘을 발휘했다.

이상 유신의 고전적인 용례들, 곧 『시경』, 『맹자』, 『대학』의 '주수구방, 기명유신(周雖舊邦, 其命維新)', 『서경』의 '유신궐덕(惟新厥德)', '함여유신(咸與惟新)' 등은 한국사에서 전개된 유신 개념의 주된 원천이었다.⁸⁾ '유신(維新)' 또는 '유신(惟新)'은 군주의 수덕과 백성의 교화, 그리고 이에 따른 유교적인 왕정의 실현이라는 내적 질서를 갖춘 정치적 언어였는데, 이 글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고종·순종 시기 『승정원일기』보다 훨씬 앞선 시기의 다양한 문헌에서 이 어휘가 출현하고 있었음이

6) 『書經·咸有一德』. “今嗣王, 新服厥命, 惟新厥德.”

7) 『書經·胤征』. “舊染汚俗, 咸與惟新.”

8) 『書經』의 '惟新'에는 '사람은 옛 사람을 구하고, 그릇은 옛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새 그릇을 쓰라[惟新]'는 구절이 있는데(『書經·盤庚上』. “人惟求舊, 器非求舊, 惟新.”), 이 구절의 초점은 옛 사람에 있지 새 그릇에 있지 않으므로 『서경』의 유신 개념을 논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또, 『서경』에는 '무릇 우리 새로 출발하는 나라들은 법(法)이 아닌 것을 따르지 말며'라는 구절이 있는데(『書經·湯誥』. “凡我造邦, 無從匪彝.”), 이에 대한 집전(集傳)의 해설은 '하(夏)나라 명(命)이 이미 축출됨에 탕왕의 명이 새로워지니[湯命惟新], 제후의 나라가 비록 오래되었으나 모두 다시 새롭게 시작하였다'("夏命已黜, 湯命惟新, 侯邦雖舊, 悉與更始.")이다. 이 집전의 해설 역시 『시경』의 '주수구방, 기명유신'과 연결된 것인데, 『서경』의 경문이 아니라 경문을 해설하는 집전의 구절이라 『서경』의 유신 개념을 논하는 독립적인 구절로 상정하지는 않았다.

확인된다. 예를 들어 『삼국사기』에는 후백제 견훤의 아들 신검이 대왕이 되어 사면령을 내리는 장면이 있는데, 특별한 은혜를 미루어 ‘유신(惟新)’의 정치를 보이하고자 한다는 표현이 발견된다.⁹⁾ 『고려사』에도 고려 인종이 묘청의 난을 진압한 후 사면령을 내렸는데, 역시 백성에게 은혜를 내려 ‘유신(惟新)’하게 하여 상서로운 일을 맞이하게 하겠다고 이르는 내용이 있다.¹⁰⁾ 이것은 모두 군주의 신덕에 의한 백성의 교화가 다름 아닌 사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서경』의 ‘함여유신’을 의미한다. 또 고려말 조준(趙浚)은 『주례』에 입각한 관제 개혁안을 제출하면서 조종의 성헌(成憲)을 회복하여 ‘유신(惟新)’의 교화를 보일 것을 주장했다.¹¹⁾ 유신이 환기하는 새 정치가 정책 입안과 관련되어 발효되는 것은 『서경』의 ‘유신궐덕’과 관계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²⁾

이와 함께 『고려사』에는 이색이 고려 태조가 불교를 일으켜 자손을 보호하고자 했으니 우왕의 불탑 보수가 태조의 마음과 합치하는 것이라고 기리고는 이를 ‘주수구방, 기명유신’의 의미로 보았다는 기록이 있다.¹³⁾ 『태조실록』에 따르면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자신이 고려가 망하는 시기에 ‘조선유신(朝鮮維新)’의 천명을 받았다고 인식했는데,¹⁴⁾ 여기서

9) 『三國史記』 권50 列傳 第10 甄萱. “宜推不次之恩, 以示惟新之政, 可大赦境內.”
 10) 『高麗史』 권16 世家 第16 仁宗 14년 5월. “庶幾優渥之澤, 普被於民, 咸與惟新, 以格善祥.”
 11) 『高麗史』 권118 列傳 第31 趙浚. “凡不急之官, 雜冗之吏, 一皆汰去, 以復祖宗代天設官之成憲, 以示盛朝惟新之化.”
 12) 『書經』의 ‘惟新厥德’에는 ‘任官惟賢才, 左右惟其人’과 같이 인재 등용에 관한 정치 개혁이 언급되어 있었는데, 조준이 ‘冗官의 汰去를 주장하면서 이를 ‘惟新’과 연결시킨 것은 이런 의미에서는 자연스런 발상이다.
 13) 『高麗史』 권115 列傳 第28 李穡. “我太祖創業垂統, 弘揚佛法, 以保子孫者, 非前世帝王之所可及. 先王能體太祖之心, 歸崇三寶, 今殿下修塔如此, 殿下之心, 上合於太祖, 又可知矣. 嗚呼! 周雖舊邦, 其命維新, 將不在於今日乎?”
 14) 『太祖實錄』太祖 3년 12월 3일(戊辰). “猥以庸愚之質, 獲荷陰騭之休, 值高麗將亡之時, 受朝鮮維新之命.”

의 ‘유신’ 역시 『시경』의 ‘주수구방, 기명유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똑같은 ‘주수구방, 기명유신’이지만 이색의 경우 고려 우왕이 고려 태조를 계승하여 바람직한 왕정을 추구한다는 발상이었다면, 조선 태조의 경우 역성혁명으로 인한 조선왕조의 개창을 ‘조선유신’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다분히 『서경』 집전의 ‘하명이출, 탕명유신(夏命已黜, 湯命惟新)’의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메이지 유신을 겪은 후의 일본에 대해 ‘일본유신’이 발화되었듯 신왕조를 개창한 조선에 대해 ‘조선유신’이 발화된 점이 흥미롭다.

이처럼 『시경』의 ‘주수구방, 기명유신’과 『서경』의 ‘함여유신’, ‘유신 쫓겨’를 중심으로 하는 고전적인 유신 개념은 조선의 역사 문헌에서도 뚜렷하게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은 고종·순종 시기 『승정원일기』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이 시기 『승정원일기』에 출현하는 ‘유신(維新)’ 또는 ‘유신(惟新)’을 검출하여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고종·순종 시기 『승정원일기』 소수(所收) ‘유신’ 복합어 일람¹⁵⁾

#	연도	詩經	書經	전치어	후치어
1	1864	周命之維新, 維新舊邦	咸與維新	維新之義, 維新之會, 維新之圖	庶政維新, 化理維新, 邦命維新, 天命維新, 萬化維新, 萬化惟新, 咸懷維新
2	1865	周雖舊邦其 命維新, 雖舊維新, 其命維新		維新之會, 維新之詩, 維新之大本	萬化維新, 邦錄維新, 萬事維新, 初元之政維新, 宸化維新, 景命維新, 聖德維新, 奉金楨而維新, 邦命維新, 寵命惟新

15) [표 1]에 기재된 유신 복합어들 중에서 유신 전치어와 유신 후치어는 『승정원일기』 기사에 보이는 유신이 포함된 하나의 어구에서 부가 수식어를 제외하고 유신 바로 다음의 하나의 단어 또는 유신 바로 앞의 하나의 단어와 결합시킨 형태로 추출한 것이다. 실제 어구는 표에서 간략화된 형태보다 더 글자수가 많음을 밝힌다. 또한 동일한 어구라도 그것이 유신 전치어의 형태와 유신 후치어의 형태를 겸하고 있다면, 그것을 각각 별도의 유형으로 분리했음을 밝힌다. 유교 경서 계열의 복합어와 유신 전치어도 마찬가지로 관계에 있음을 밝힌다.

#	연도	詩經	書經	전치어	후치어
3	1866	雖舊維新, 維新其命, 維新周命	咸與維新	維新周命之一大機會, 雖舊維新之一大會, 維新之會	追慕維新, 景命維新, 百度維新, 天命維新, 邦命維新, 聖化維新, 勳精維新, 庶政維新, 萬化維新
4	1867	雖舊維新			景祿維新
5	1868		咸與維新, 惟新厥德	維新之休, 維新之會, 惟新厥德之會	庶政維新, 景命維新
6	1869				
7	1870		咸與維新	維新之會, 維新之至仁盛德	法令政格維新
8	1871		舊染維新		
9	1872			維新之會	邦命維新, 寶籙維新, 景命維新
10	1873				
11	1874	周雖舊邦其 命維新			聖化維新, 萬化維新
12	1875				天命維新
13	1876				
14	1877				百祿維新
15	1878				百祿維新
16	1879		咸與維新		歲籙維新
17	1880		咸與維新		邦慶維新, 百度維新
18	1881		咸與維新	維新之治	精彩維新
19	1882		咸與維新, 惟新厥命	維新萬機, 維新之初, 維新之曰, 惟新之望	萬化維新, 萬機維新, 百度維新, 再造維新, 朝野惟新, 更始維新
20	1883			維新百度	庶績維新, 昌曆惟新, 萬方惟新
21	1884	周雖舊邦其 命維新		維新之際, 維新之運	邦命維新, 天命維新
22	1885	舊邦維新			邦命維新, 天命維新, 景命維新, 邦籙維新, 景命惟新
23	1886				邦命維新
24	1887				維新之休
25	1888	雖舊邦命維 新	惟新其德	維新之治	景籙維新, 邦籙維新, 強求維新
26	1889		咸與維新		聖德維新, 萬化惟新
27	1890		咸與維新, 咸與惟新	維新之德意, 維新之義, 維新之盛意, 維新之盛德, 維新之德	制置維新, 邦命維新
28	1891	周雖舊邦其 命維新	咸與維新	維新之盛德, 維新之盛意, 維新之意, 維新以來	包荒維新, 日本維新

#	연도	詩經	書經	전치어	후치어
29	1892		咸與維新	維新之休	百度維新, 景命維新, 邦命維新, 百祿維新
30	1893		咸與維新 捨舊維新		惟新之化
31	1894		咸與維新, 俗染維新, 惟新厥命	維新之至意, 維新之盛意, 維新之化, 維新之初, 維新之效, 維新之治	百度維新, 設置維新, 滌垢維新, 景命維新, 邦命維新
32	1895		咸與維新	維新之初, 維新之時, 維新庶政, 維新之政, 維新之業, 維新之宏業, 維新政治	聖化維新, 百度維新, 邦國維新, 咸底維新, 邦運維新, 百務維新
33	1896		咸與維新		
34	1897	周雖舊邦其 命維新, 舊邦維新	維新厥命	維新之治, 維新之化, 維新之命, 維新之日, 維新受命, 維新贊襄	邦命維新, 景命維新, 曆服維新, 節制維新, 政令維新, 天命維新, 受命維新, 百度維新, 皇運維新, 燦然惟新
35	1898	周雖舊邦其 命維新, 其命維新	咸與維新 咸與惟新	維新之化, 維新之治, 維新之會, 維新之業, 維新之政, 維新之日, 維新之命, 維新之除,	邦命維新, 天命維新, 大赦維新, 景命維新, 大化維新, 百度維新, 闢圖惟新
36	1899	由舊邦而命 維新		維新之際, 維新之命, 維新受命, 維新之會	大韓今日維新, 東方一初維新, 法度惟新
37	1900	舊邦維新		維新之化	邦命維新, 天命維新, 歲籥維新
38	1901	舊邦維新		維新以來, 維新之日, 惟新之運	邦籙維新, 寶籙維新, 邦命維新
39	1902	舊邦維新, 邦命舊而維 新		維新之命, 維新之化	邦命維新, 景命維新, 天命維新, 舊案維新, 百度維新
40	1903			維新以來, 維新之治, 維新厥度	法度維新, 邦命維新, 天命維新
41	1904			維新以來, 維新之會, 維新之化, 維新之效	日本之維新, 政教維新, 求其維新, 丕圖維新, 號稱維新
42	1905			維新之治	天命維新, 百度維新
43	1906			維新之謨, 維新之基	邦命維新, 國家維新
44	1907		維新을咸與 케	(고종) 維新中興之後 / (순종) 維新之初, 維新之秋, 維新之時, 維新之際, 維新二字, 維新庶政, 維新我邦命, 惟新之時, 維新을圖弘진되, 維新을은日	(고종) 國政維新 / (순종) 萬化維新, 百度維新, 景命維新, 聖化維新, 百度를維新코즈, 今於維新
45	1908			維新의實, 維新以來, 維新思想, 維新也외懋實也, 以維新으로定國是하야,	光武維新, 更始維新
46	1909				維新大業, 維新經始
47	1910			維新之首倡, 維新政令	力圖維新

[표 1]은 고종·순종 시기 『승정원일기』에 출현하는 유신을 검출, 그 복합어를 크게 『시경』과 『서경』에 직접 연결된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로 구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류의 복합어를 다시 복합어 내 유신의 위치에 따라 유신 후치어와 유신 전치어로 구분하여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 가운데 『시경』과 『서경』에서 직접 유래하는 유신 복합어를 살펴보면, 유신 빈도수 전체 327건(유신(維新)은 305건, 유신(惟新)은 22건) 중에서 『시경』의 ‘주구수방(周雖舊邦, 기명유신(其命維新))’ 계열이 28건, 『서경』의 ‘구염오속(舊染汚俗, 함여유신(咸與惟新))’ 계열이 43건, 『서경』의 ‘유신궐덕(惟新厥德)’ 계열이 5건으로 이를 모두 합하면 전체 327건 중 76건으로 약 23.2%의 비중이다.¹⁶⁾ 『시경』과 『서경』에서 유래하는 고전적인 유신의 직접적인 차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지만, 유신 후치어 중에서 『시경』의 ‘기명유신’에서 변주된 ‘~命維新’ 또는 ‘~命惟新’ 형태의 다양한 어휘들의 빈도수 66건까지 포함하면 전체 327건 중 142건으로 약 43.1%의 비중이니 결코 작지 않다. 여기서 [표 1]의 「시경」·「서경」 항목의 유신 복합어 및 「후치어」 항목 중 ‘~命維新’ 형태의 유신 복합어를 추출하여 이를 유교 경서 계열 유신 복합어라 칭하고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6) ‘周雖舊邦, 其命維新’의 경우 『승정원일기』에서 다양한 형태의 축약적인 표현들이 사용됨을 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周命維新, 其命維新, 舊邦維新, 雖舊維新 등이 그것이다. 또, ‘咸與惟新’의 경우 『승정원일기』에서 자주 보이는 표현은 『서경』의 본래적인 ‘咸與惟新’(3건)이 아니라 ‘惟’를 ‘維’로 바꾼 ‘咸與維新’(38건)이다. 『시경』, 『대학』, 『맹자』에 나오는 ‘周雖舊邦, 其命維新’에 친숙한 『승정원일기』의 편찬자들이 『서경』의 ‘咸與惟新’을 ‘咸與維新’으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舊染惟新’은 ‘咸與惟新’과 동일한 구절의 다른 표현이다. 또 ‘惟新厥德’의 경우 이 계열에는 ‘惟新厥命’과 ‘惟新其德’이 포함되는데, ‘惟新厥命’은 ‘惟新厥德’과 동일한 구절의 다른 표현이다.

[표 2] 고종·순종 시기 『승정원일기』 소수(所收) 유교 경서 계열 ‘유신’ 복합어 일람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1	周雖舊邦其命維新	1									1											1			
2	舊邦命維新 ¹⁷⁾																								
3	舊邦維新 ¹⁸⁾	1																					1		
4	周命維新 ¹⁹⁾	1		1																					
5	其命維新 ²⁰⁾	2	1																						
6	雖舊維新	2	2	1																					
7	天命維新 ²¹⁾	2		1								1										1	1		
8	邦命維新 ²²⁾	1	1	1						2												2	1	1	
9	景命維新		3	2		2				1													2		
10	受命維新 ²³⁾																								
11	咸與惟新																1								
12	咸與維新 ²⁴⁾	2		3		1		1										1	1	1					
13	舊染維新 ²⁵⁾								1																
14	惟新厥德 ²⁶⁾					1																			
15	惟新厥命 ²⁷⁾																			1					
	계	7	9	11	1	4	0	1	1	3	0	1	1	0	0	0	1	1	1	2	0	4	5	1	0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계
1	周雖舊邦其命維新				1						2	1													7
2	舊邦命維新	1										1				1									3
3	舊邦維新									2				1	1	1									7
4	周命維新																								2
5	其命維新										1														4
6	雖舊維新																								5
7	天命維新									6	1		1		2	1		1							18
8	邦命維新			1		1		1		6	1		2	1	1	1			1	1					26
9	景命維新					1		1		3	2				1						1				19
10	受命維新									2		1													3
11	咸與惟新			1							1														3
12	咸與維新		1	7	3	1	2	5	2	1		2									1				35
13	舊染維新					2	2																		5
14	惟新厥德	1																							2
15	惟新厥命							1			1														3
	계	2	1	9	4	3	4	10	2	1	22	9	2	4	2	6	2	0	1	1	3	0	0	0	142

17) 항목의 ‘舊邦命維新’은 ‘雖舊邦命維新’(1888년)과 ‘由舊邦而命維新’(1899년)과 ‘邦命舊而維新’(1902년)을 포함한다.

[표 2]에서 보듯 유교 경서 계열 유신 복합어는 전체 15종 142건(『시경』 유신 복합어 6종 28건, 이것의 파생 복합어 4종 66건, 『서경』 유신 복합어 5종 47건)이다. 이 가운데 전체 빈도수로 보면 ‘참여유신’(39건/#11·#12·#13), ‘방명유신’(26건/#8), ‘경명유신’(19건/#9), ‘천명유신’(18건/#7) 등이, 연도별 출현 횟수로 보아도 ‘참여유신’(21회/#11·#12·#13), ‘방명유신’(18회/#8), ‘경명유신’(11회/#9), ‘천명유신’(11회/#7) 등이 가장 활발한 운동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시경』 유신 복합어 6종 28건을 ‘주수구방, 기명유신’의 서로 다른 표현으로 보고 하나로 간주할 경우 28건 15회의 상당수를 얻는 반면, 『서경』의 ‘유신궐덕’(2건·2회/#14)과 ‘유신궐명’(3건·3회/#15)의 비중은 미미하다. 주요 유신 복합어의 집중 출현 구간을 살펴보면, 1864~1866년(『시경』 유신 복합어 도합 11건·8회, ‘방명유신’·‘경명유신’·‘천명유신’ 도합 11건·7회), 1897~1903년(『시경』 유신 복합어 11건·9회, ‘방명유신’·‘경명유신’·‘천명유신’ 도합 29건·14회), 1890~1895년(‘참여유신’ 복합어 도합 24건·9회)이 고종조의 유신 개념과 관련하여 문제적인 기간으로 부각된다. 『시경』 유신 복합어 및 그것의 파생 복합어가 주로 고종의 즉위 초기 기간(1864~1866년)과 대한제국 선

-
- 18) 항목의 ‘舊邦維新’은 ‘維新舊邦’(1864년)을 포함한다.
 - 19) 항목의 ‘周命維新’은 ‘周命之維新’(1864년), ‘維新周命’(1866년)을 포함한다.
 - 20) 항목의 ‘其命維新’은 ‘維新其命’(1866년)을 포함한다.
 - 21) 항목의 ‘天命維新’은 ‘天命之眷佑維新’(1864년)과 ‘天命之眷顧維新’(1866년)을 포함한다.
 - 22) 항목의 ‘邦命維新’은 ‘邦命屬維新’(1864년)과 ‘邦命之維新’(1872년, 1884년)과 ‘邦命以之維新’(1885년, 1886년)과 ‘維新我邦命’(1907년)을 포함한다.
 - 23) 항목의 ‘受命維新’은 ‘維新受命’(1897년, 1899년)을 포함한다.
 - 24) 항목의 ‘咸與維新’은 ‘維新을咸與케’(1907년)를 포함한다.
 - 25) 항목의 ‘舊染維新’은 ‘舊染之維新’(1871년), ‘捨舊維新’(1893년), ‘俗染維新’(1894년), ‘滌垢維新’(1894년)을 포함한다.
 - 26) 항목의 ‘惟新厥德’은 ‘惟新其德’(1888년)을 포함한다.
 - 27) 항목의 ‘惟新厥命’은 ‘維新厥命’(1897년)을 포함한다.

포 이후 기간(1897~1903년)에 집중했다는 것은 ‘주수구방, 기명유신’이 의미하는 새로운 왕정의 수립이 각별히 이 기간에 중요한 메시지로 작용했음을 뜻한다. 『서경』의 유신 복합어 중에서 ‘함여유신’ 계열의 그것이 주로 갑오 동학농민전쟁 전후의 시기(1890~1895년)에 집중했다는 것은 이 시기 정치사회적 혼란을 배경으로 ‘함여유신’의 메시지가 시급히 요청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면 고종·순종대에 보이는 이러한 유신 복합어들이 조선후기 전체의 유신 복합어에서 보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승정원일기』의 유신 복합어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자.

[표 3] 고종·순종 시기 『승정원일기』 소수(所收) 유교 경서 계열 ‘유신’ 복합어가 출현하는 인조대~순종대 『승정원일기』 기사 건수 일람

#	분류	복합어	최초	최후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순종	전체
1	시경	周雖舊邦其命維新	1637	1898	1		2	1		39	2	6	3	1	7		62
2	시경	舊邦命維新	1888	1902											3		3
3	시경	舊邦維新	1661	1902			1					1	1	2	7		12
4	시경	周命維新	1625	1866	1					4		3	1	1	2		12
5	시경	其命維新	1676	1866				2		7	1	3		1	4		18
6	시경	雖舊維新	1724	1867					1			5	1	2	5		14
7	파생	天命維新	1628	1905	1					3	2			2	17	1	26
8	파생	邦命維新	1640	1906	1	1		1		14	7	3		1	25	1	54
9	파생	景命維新	1713	1907				1		9	9	5	3	2	18	1	48
10	파생	受命維新	1651	1897		1				1		1			3		6
11	서경	咸與維新	1784	1898							1	6		1	3		11
12	서경	咸與維新	1623	1907	8	2	1	18	5	26	31	38	8	6	34	1	178
13	서경	舊染維新	1780	1894							1				5		6
14	서경	惟新厥德	1718	1888				1	1	2		1	1	2	2		10
15	서경	惟新厥命	1781	1897							1	2			3		6
	전체	종류수			5	3	3	6	3	9	9	12	7	11	15	2	15
	전체	빈도수			12	4	4	24	7	105	55	74	18	21	138	4	475

[표 3]에서 보듯 『시경』의 유신 복합어들, 그리고 그 파생 복합어로서 ‘방명유신’·‘경명유신’·‘천명유신’ 등이 특히 영조대부터 돌발적으로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계
21	維新之義			2																					3
22	維新之治	1						2			3	1					1		1						10
23	維新之政								3			2													5
24	維新之業								1			1													2
25	維新之效							1	1									1							3
26	維新之謨																			1					1
27	維新之基																			1					1
28	維新之大本																								1
29	維新之圖																				1				2
30	維新之首倡																							1	1
31	維新之詩																								1
32	維新의實																					1			1
33	維新也와懋實也																					1			1
34	以維新으로定國是하야																						2		2
	계	1	0	8	4	1	2	8	8	0	9	12	3	2	3	3	2	5	1	2	10	6	2	1	118

[표 5]에서 보듯 유신 전치어 계열 유신 복합어는 전체 34종 118건인데, 이것들은 대개 ‘維新之~’ 또는 ‘惟新之~’ 형태로 유신이 전치어로서 수식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표 5]는 이 복합어들을 유신과 결합된 어휘의 의미에 따라 ‘之’가 없는 복합형과 ‘之’가 있는 수식형으로 나누고 다

- 28) 항목의 ‘維新之際’는 ‘維新之除’(1898년)를 포함한다. ‘除’는 ‘際’의 오기로 판단한다.
- 29) 항목의 ‘維新之日’은 ‘維新하옴날日’(1907년)을 포함한다.
- 30) 항목의 ‘維新之時’는 ‘惟新之時’(1907년)를 포함한다.
- 31) 항목의 ‘維新之運’은 ‘惟新之運’(1901년)을 포함한다.
- 32) 항목의 ‘維新之化’는 ‘惟新之化’(1893년)를 포함한다.
- 33) 항목의 ‘維新之德’은 ‘維新之至仁盛德’(1870년)과 ‘維新之盛德’(1890년, 1890년, 1891년)을 포함한다.
- 34) 항목의 ‘維新之意’는 ‘維新之至意’(1894년)와 ‘維新之盛意’(1890년, 1890년, 1891년, 1894년)를 포함한다.
- 35) 항목의 ‘維新之業’은 ‘維新之宏業’(1895년)을 포함한다.
- 36) 항목의 ‘維新之圖’는 ‘維新을圖하진디’(1908년)를 포함한다.

시 ‘之’ 수식형을 크게 시간 계열(-會/際/日/時/初/秋)과 교화 계열(-命/運/化/休/望/德/意/義), 그리고 정치 계열(-治/政/業/效/謨/基/大本/圖/首倡), 그리고 기타로 분류한 것이다. 개별 복합어로 보면 ‘유신지회’(16건·9회/#8), ‘유신지화’(12건·7회/#16), ‘유신지치’(10건·7회/#22) 등이 가장 활발한 운동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들이 각각 시간 계열, 교화 계열, 정치 계열의 복합어의 대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들이 가장 빈발하는 연도를 적시하면 1864년(‘유신지회’-5건), 1897년(‘유신지치’-3건), 1898년(‘유신지화’-3건)인데, 이를 통해 역시 고종 즉위 초기와 대한제국 수립기가 중요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유신 전치어 계열 유신 복합어의 특징은 그 주된 분포 기간이 대개 1890년 이후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간 계열의 복합어들은 1864~1872년에 분포하는 ‘유신지회’의 예외를 제외하면 거의 1894~1907년에 배치되어 있으며, 1898년(4건, 會·際·日)과 1907년(6건, 際·日·時·初·秋)에 특히 복합어들이 서로 연결해 있다. 교화 계열의 복합어들은 거의 1890~1904년에 배치되어 있으며, 1890년(3건, 德·意·義)·1894년(4건, 化·意)·1897년(4건, 命·化)·1898년(4건, 命·化)에 특히 복합어들이 서로 연결해 있다. 정치 계열의 복합어들은 거의 1894~1906년 사이에 배치되어 있으며, 1894년(3건, 治·效)·1895년(5건, 政·效·業)·1898년(4건, 治·政·業) 사이에 특히 복합어들이 서로 연결해 있다. ‘지’가 없는 복합형들은 ‘유신이래’를 제외하면 모두 1895년 이후에 비로소 출현한다는 특징이 있고, 특히 1907년 이후 ‘유신대업’·‘유신중흥’·‘유신사상’ 등의 어휘가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전체적으로 유신 전치어 계열의 유신 복합어는 유교 경서 계열 유신 복합어와 달리 고종 초반기의 상황에서 미미했다가 고종 후반기에 들어와 약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면 고종·순종대에 보이는 이러한 유신 복합어들이 조선후기 전체의 유신 복합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표 5] 고종·순종 시기 『승정원일기』 소수(所收) 유신 전치어 계열 '유신' 복합어가 출현하는 인조대~순종대 『승정원일기』 기사 건수 일람

#	분류	복합어	최초	최후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순종	전체
1	복합	維新政治	1895	1895											1		1
2	복합	維新大業	1909	1909												2	2
3	복합	維新中興	1907	1907											1		1
4	복합	維新思想	1908	1908												1	1
5	복합	維新贊襄	1897	1897											1		1
6	복합	維新二字	1770	1907						1						2	3
7	복합	維新以來	1891	1908											4	1	5
8	시간	維新之會	1694	1904				2	1	8	11	122	47	41	16		248
9	시간	維新之際	1740	1907						1					3	1	5
10	시간	維新之日	1626	1901	2	1	2	10	3	16	2	1		1	4	1	43
11	시간	維新之時	1713	1907				1		5		1		1	1	2	11
12	시간	維新之初	1882	1907											4		4
13	시간	維新之秋	1907	1907												1	1
14	교화	維新之命	1756	1902						5	3	6	2	1	7		24
15	교화	維新之運	1709	1884				1							2		2
16	교화	維新之化	1633	1904	3	2	2	9	5	26	14	18	2	3	12		96
17	교화	維新之休	1756	1892						2	1			1	3		7
18	교화	維新之望	1882	1882											1		1
19	교화	維新之德	1694	1890				1	1	1				1	6		10
20	교화	維新之意	1623	1893	9			1		6	2	3	1		7		29
21	교화	維新之義	1723	1890					1	1	1		1		3		7
22	정치	維新之治	1702	1905				2	1	7	5	1	1	1	10		28
23	정치	維新之政	1649	1898		1	3	1	2	5				1	5		20
24	정치	維新之業	1756	1898						1					2		3
25	정치	維新之效	1782	1904							6	3			3		12
26	정치	維新之謨	1906	1906											1		1
27	정치	維新之基	1906	1906											1		1
28	정치	維新之大本	1865	1865											1		1
29	정치	維新之圖	1802	1864								1			1	1	3
30	정치	維新之首倡	1910	1910												1	1
31	기타	維新之詩	1865	1865											1		1
32	기타	維新의實	1908	1908												1	1
33	기타	維新也와懋實也	1908	1908												1	1
34	기타	以維新으로定國是하야	1908	1908												2	2
	전체	종류수			3	3	3	9	7	14	9	10	6	9	26	13	34
	전체	빈도수			14	4	7	28	14	85	45	158	54	51	101	17	577

[표 5]는 유신 전치어 계열 유신 복합어들의 시기별 출현 양상을 나타낸 것인데, 복합어마다 상이한 양상을 띠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1부터 #7까지 ‘之’가 없는 복합형들은 ‘유신이자’(#6)의 영조대 기사 1건을 제외하면 모두 고종·순종 시기에만 출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를 통해 유신 복합어 중에서 이런 식의 조어법 그 자체가 조선에서는 최신에 속하는 것이었음을 발견한다. #8부터 #13까지 시간 계열 복합어 중에서 압도적인 빈도수를 보이는 어휘는 단연 ‘유신지회’(#8)이며, ‘유신지일’(#10)이 이에 버금가는 어휘이다. 반면 ‘유신지초’(#12), 그리고 영조대 기사 1건을 예외로 하면 ‘유신지제’(#9)는 모두 고종대 이후에 보이는 어휘이다. ‘유신이래’(#7)와 ‘유신지초’는 유신에 관한 시간적 표현으로서 모두 고종대 이후의 새로운 현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기에는 유신을 조선말기의 특정한 고정된 실체로 간주하고 그 이후 또는 그 처음을 상징한다는 새로운 발상이 있다. #14부터 #21까지 교화 계열 복합어 중에서 압도적인 빈도수를 보이는 어휘는 단연 ‘유신지화’(#16)이며 ‘유신지명’(#14)과 ‘유신지의’(#20)가 이에 버금 간다. 이 계열의 복합어는 ‘유신지망’(#18)을 제외하면 빈도의 차이는 있어도 모두 조선후기에서 용례를 볼 수 있는, 유신의 전통적인 용법 속에 있다고 생각된다. #22부터 #30까지 정치 계열 복합어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조선후기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던 ‘유신지치’(#22)와 ‘유신지정’(#23)이다. 반면 ‘유신지모’(#26), ‘유신지기’(#27), ‘유신지대본’(#28), ‘유신지수창’(#30)은 고종대 이후 비로소 용례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 고종대 이후 유신 감각의 변화와 관계된, 유신에 관한 용법의 정치적 확장으로 이해된다. 전체적으로 유신 전치어 계열의 유신 복합어들은 조선후기의 전통적인 어휘와 고종대 이후의 변화된 어휘로 양분할 수 있다.

이어서 [표 1]에서 ‘유신 후치어’로 분류했던 복합어들의 양상과 추세를 살펴포도록 하자. 고종·순종 시기 『승정원일기』에 보이는 유신 복합어 중에서 ‘유신 후치어’로 분류되는 복합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계
12	邦籙維新	1													1										4
13	景祿維新																								2
14	寶籙維新														3										4
15	百祿維新				1																				3
16	聖化維新							1													1				4
17	宸化維新																								1
18	萬化維新																				1				8
19	萬化惟新	1																							2
20	大化維新										1														1
21	化理維新																								2
22	國政維新							1													1				2
23	初元之政維新																								1
24	政教維新																1								1
25	庶政維新							1													1				7
26	勵精維新																								1
27	法度維新																1								1
28	法度惟新											1													1
29	百度維新				1	2	1		1	1					1			1		1					14
30	厥度維新																1								1
31	政令維新								1														1		2
32	法令政格維新																								1
33	設置維新						1																		1
34	制置維新		1																						1
35	節制維新									1															1
36	曆服維新									1															1
37	舊案維新															1									1
38	大赦維新											1													1

- 37) 항목의 ‘日本維新’은 ‘日本之維新’(1904년)을 포함한다.
- 38) 항목의 ‘國政維新’은 ‘維新國政’(1895년)을 포함한다.
- 39) 항목의 ‘庶政維新’은 ‘維新庶政’(1895년, 1907년)을 포함한다.
- 40) 항목의 ‘百度維新’은 ‘維新百度’(1883년)를 포함한다.
- 41) 항목의 ‘厥度維新’은 ‘維新厥度’(1903년)를 포함한다.
- 42) 항목의 ‘政令維新’은 ‘維新政令’(1910년)을 포함한다.
- 43) 항목의 ‘萬機維新’은 ‘維新萬機’(1882년)를 포함한다.
- 44) 항목의 ‘更始維新’은 ‘維新更始’(1909년)를 포함한다.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계
39	百務維新							1																	1
40	庶績維新																								1
41	萬機維新																								2
42	萬事維新																								2
43	今於維新																			2					2
44	號稱維新																1								1
45	燦然維新									1															1
46	更始維新																				1	1			3
47	再造維新																								1
48	圖圖維新											2													2
49	力圖維新																							1	1
50	丕圖維新																1								1
51	求其維新																1								1
52	強求維新	1																							1
53	咸底維新							1																	1
54	追慕維新																								1
55	咸懌維新																								1
56	歲籥維新													1											2
57	昌曆維新																								1
58	包荒維新				1																				1
59	精彩維新																								1
60	奉金櫜而維新																								1
	계	2	1	1	2	2	0	3	8	0	6	5	3	1	4	2	2	5	1	1	7	2	1	2	109

[표 6]에서 보듯 유신 후치어 계열 유신 복합어는 전체 60종 109건인데,⁴⁵⁾ 이 중에서 단 한번 1건으로 출현하는 어휘가 모두 41종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전체 68.3%). 이는 유교 경서 계열 유신 복합어 15종 141건에서 단한번 1건으로 출현하는 어휘가 전무했으며(전체 0%), 유신 전치어 계열 유신 복합어 34종 118건에서 단한번 1건으로 출현하는 어휘가 13종에 불과했음(전체 38.2%)과 대조적인 양상이다. 상대적으로 종류는 풍부하나 빈도는 작다. [표 6]의 유신 후치어 계열 유신 복합어들은

45) 유신 후치어 복합어에는 형태상 ‘천명유신’, ‘경명유신’, ‘방명유신’, ‘수명유신’ 등도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것들은 『시경』의 ‘주수구방, 기명유신’에서 파생된 어휘로 간주하고 유교 경서 계열의 유신 복합어에 넣었다.

크게 국(國), 운(運), 화(化), 정(政), 법(法), 제(制), 그리고 기타의 단위로 세분할 수 있다. 이를 통틀어 전체 53종의 복합어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들은 ‘백도유신’(14건 · 12회/#29), ‘만화유신’(10건 · 8회/#18 · #19), ‘서정유신’(7건 · 5회/#25)이다. 각각의 세분화된 단위에서 이들 유신 후치어 계열 복합어들을 살펴보면, 먼저 #1부터 #8까지의 국(國) 복합어 중에서 ‘일본유신’(#6), ‘광무유신’(#3), ‘대한금일유신’(#4), ‘동방일초유신’(#5) 등은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접하고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사회개혁을 추구했던 고종대 후기의 역사상과 직결된 핵심적인 어휘로 중요성이 인정된다. #9부터 #15까지 운(運) 복합어 중에서 ‘방록유신’(#12)과 ‘보록유신’(#14)이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높고 ‘황운유신’(#10)은 대한제국의 수립을 배경으로 등장한 초유의 어휘라는 특징이 있다. #16부터 #21까지 화(化) 복합어 중에서 ‘만화유신’(#18 · #19)의 빈도수가 높고, 전체적으로는 이 계열의 복합어들이 고종 즉위 초기(1864~1866년)에 집중적으로 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22부터 #26까지 정(政) 계열 복합어는 별다른 특징이 없으나 그 가운데 특기할 점이 있다면, ‘서정유신’(#25)이 고종 즉위 초기에 집중적으로 출현했다는 점, 그리고 ‘초원지정유신’(#23)이라는 이색적인 어휘가 역시 고종 즉위 초기에 출현했다는 점이다. #27부터 #32까지 법(法) 계열의 복합어 중에서 ‘백도유신’(#29)은 빈도수가 가장 높고 비교적 전 구간에 걸쳐 고르게 배치되어 있으며, ‘법도유신’(#27 · #28)은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만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33부터 #38까지 제(制) 계열의 복합어는 모두 각각 1건의 빈도를 보이고 있으나, 유신과 결합된 전치어 ‘설치’ · ‘제치’ · ‘절제’ · ‘역복’ · ‘구안’ · ‘대사’ 등이 거의 모두 갑오개혁과 광무개혁 기간의 제도 변동과 관련된 것이라 특정 시기의 유신 복합어로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39부터 #60까지 기타 계열에서 특징적인 복합어를 꼽는다면, 임오군란을 배경으로 ‘재조유신’(#47)이 출현했고, 역시 ‘재조유신’과 마찬가지로 유신에 관한 정치적 실천의 색채가 짙은 ‘경시유신’(#46)이 순종

대의 유신과 적극적으로 연계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48부터 #53까지 유신을 향한 적극적 행동을 의미하는 도(圖), 구(求)와 연계된 복합어들이 고종 초반기에는 보이지 않다가 갑오개혁 이후에 출현하는 것도 ('강구유신'은 예외적으로 1890년) 고종대 후기 조선에서 유신 개념의 정치적 증폭을 시사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유신 전치어 계열 유신 복합어들은 빈도수의 문제보다는 복합어의 특정한 의미가 고종의 특정한 시기와 결부되어 이해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러면 고종·순종대에 보이는 이러한 유신 복합어들이 조선후기 전체의 유신 복합어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표 7] 고종·순종 시기 『승정원일기』 소수(所收) 유신 후치어 계열 '유신' 복합어가 출현하는 인조대~순종대 『승정원일기』 기사 건수 일람

#	분류	복합어	최초	최후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순종	전제
1	국(國)	國家維新	1709	1906				1							1		2
2	국(國)	邦國維新	1895	1895											1		1
3	국(國)	光武維新	1908	1908												1	1
4	국(國)	大韓今日維新	1899	1899											1		1
5	국(國)	東方一初維新	1899	1899											1		1
6	국(國)	日本維新	1891	1891											2		2
7	국(國)	萬方惟新	1883	1883											1		1
8	국(國)	朝野惟新	1882	1882											1		1
9	운(運)	邦運維新	1710	1895				1			1				1		3
10	운(運)	皇運維新	1897	1897											1		1
11	운(運)	邦慶維新	1726	1880						59	4				1		64
12	운(運)	邦錄維新	1783	1901							5		1	2	4		12
13	운(運)	景祿維新	1773	1867						1	4	1			2		8
14	운(運)	寶錄維新	1845	1901									1		4		5
15	운(運)	百祿維新	1788	1892							1				3		4
16	화(化)	聖化維新	1632	1907	1	1		9	2	4	2	2	2	1	3	1	28
17	화(化)	宸化維新	1865	1865											1		1
18	화(化)	萬化維新	1660	1907			2	1	2		1	2		2	7	1	18
19	화(化)	萬化惟新	1864	1889											2		2
20	화(化)	大化維新	1727	1898						1					1		2
21	화(化)	化理維新	1680	1864				3	3	9	8	1	1	4	2		31
22	정(政)	國政維新	1907	1907											2		2
23	정(政)	初元之政維新	1865	1865											1		1

#	분류	복합어	최초	최후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순종	전체
24	정(政)	政教維新	1904	1904											1		1
25	정(政)	庶政維新	1649	1868		1				4		66	46	38	6	1	162
26	정(政)	勵精維新	1866	1866											1		1
27	법(法)	法度維新	1903	1903											1		1
28	법(法)	法度惟新	1899	1899											1		1
29	법(法)	百度維新	1625	1907	1			3		11	19	5	6	12	13	1	71
30	법(法)	厥度維新	1903	1903											1		1
31	법(法)	政令維新	1643	1897	1									1	1	1	4
32	법(法)	法令政格維新	1870	1870											1		1
33	제(制)	設置維新	1894	1894											1		1
34	제(制)	制置維新	1890	1890											1		1
35	제(制)	節制維新	1897	1897											1		1
36	제(制)	曆服維新	1724	1897						1					1		2
37	제(制)	舊案維新	1902	1902											1		1
38	제(制)	大赦維新	1898	1898											1		1
39	기타	百務維新	1895	1895											1		1
40	기타	庶緯維新	1883	1883											1		1
41	기타	萬機維新	1851	1882										1	2		3
42	기타	萬事維新	1865	1865											1		1
43	기타	今於維新	1907	1907											2		2
44	기타	號稱維新	1904	1904											1		1
45	기타	燦然維新	1897	1897											1		1
46	기타	更好維新	1627	1908	1					1					1	2	5
47	기타	再造維新	1882	1882											1		1
48	기타	勵圖維新	1898	1898												2	2
49	기타	力圖維新	1910	1910												1	1
50	기타	丕圖維新	1904	1904											1		1
51	기타	求其維新	1904	1904											1		1
52	기타	強求維新	1888	1888											1		1
53	기타	咸底維新	1895	1895											1		1
54	기타	追慕維新	1802	1866								1	1		1		3
55	기타	咸維維新	1864	1864											1		1
56	기타	歲籥維新	1736	1900						6	2	1	2		2		13
57	기타	昌曆維新	1883	1883											1		1
58	기타	包荒維新	1891	1891											1		1
59	기타	精彩維新	1881	1881											1		1
60	기타	奉金橫而維新	1865	1865											1		1
	전체	종류수			4	2	1	6	3	10	10	8	8	8	57	9	60
	전체	빈도수			4	2	2	18	7	97	47	79	60	61	98	11	4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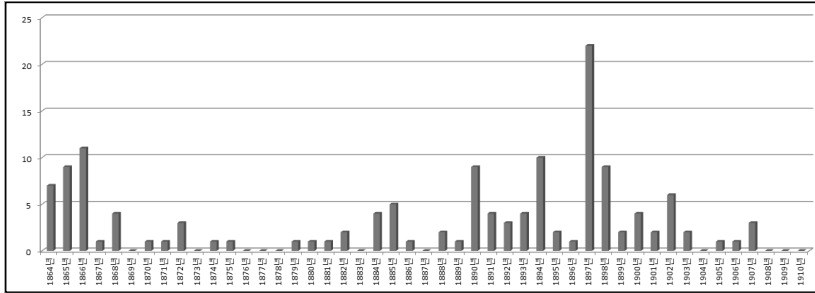
[표 7]은 유신 전치어 계열 유신 복합어들의 시기별 출현 양상을 나타낸 것인데, 역시 복합어마다 상이한 양상을 띠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먼저 #1부터 #8까지 ‘국’ 복합어는 숙종대 1건 용례가 있는 ‘국가유신’(#1)을 제외하고 ‘광무유신’(#2)·‘동방일초유신’(#3)·‘일본유신’(#4)·‘만방유신’(#5)·‘조야유신’(#6) 모두 고종대 이후의 어휘 현상임을 알 수 있다. #7부터 #12까지의 ‘운’ 복합어 중에서 압도적인 빈도수를 보이는 것은 영조대에 집중적으로 출현하는 ‘방경유신’(전체 64건/#11)이며, ‘방록유신’(12건/#12)과 ‘경록유신’(8건/#13)도 이에 버금가는 복합어임이 확인된다. ‘항운유신’은 조선후기에는 용례를 찾을 수 없는 고종대의 초유의 어휘이다. #16부터 #21까지 ‘화’ 복합어 중에서 ‘성화유신’(#16), ‘만화유신’(#18), ‘화리유신’(#21)은 모두 조선후기에 곧잘 사용된 어휘들인 반면, ‘신화유신’(#17)은 고종대에만 출현하는 복합어이다. #22부터 #26까지 ‘정’ 복합어 중에서 압도적인 빈도수를 보이는 것은 순조·헌종·철종 시기에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서정유신’(#25)인데, 이는 순조대 이후 시벽 시비에 관한 정치사의 흐름에 연결된 것으로 고종 초기 김종수가 정조의 묘정에 배향됨으로써 ‘서정유신’ 현상이 종결된다. 나머지 ‘국정유신’(#22), ‘초원지정유신’(#23), ‘정교유신’(#24), ‘여정유신’(#26)은 모두 고종대에 처음 출현하는 어휘로서 주목된다. #27부터 #32까지 ‘법’ 복합어 중에서 압도적인 빈도수를 보이는 것은 ‘백도유신’(71건/#29)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복합어들은 인조대 ‘정령유신’(#31) 기사 1건을 제외하면 모두 고종대에 처음 등장한다. #33부터 #38의 ‘제’ 복합어들은 영조대 ‘역복유신’(#36) 기사 1건을 제외하면 모두 고종대에 처음 나타나는데, 이것들이 대개 모두 갑오개혁과 광무개혁과 연결된 특정한 어휘들이었음은 전술하였다. #39부터 #60까지의 기타 복합어 역시 대부분 고종대에 처음 등장하는 어휘들인데, 경시유신(#46)·추모유신(#54)·세약유신(#56)만 예외적으로 고종대 이전 조선후기의 용례가 있다. 『승정원일기』에 한정되는 현상이지만, 전체적으로 조선후기의 역사

적 흐름에서 볼 때, 고종·순종대 유신 후치어 계열 유신 복합어는 전대 미문의 새로운 어휘들을 보였는데, 이는 고종대의 역사 변동과 연계되어 유신 복합어의 자기 확장이 활발했음을 뜻하는 현상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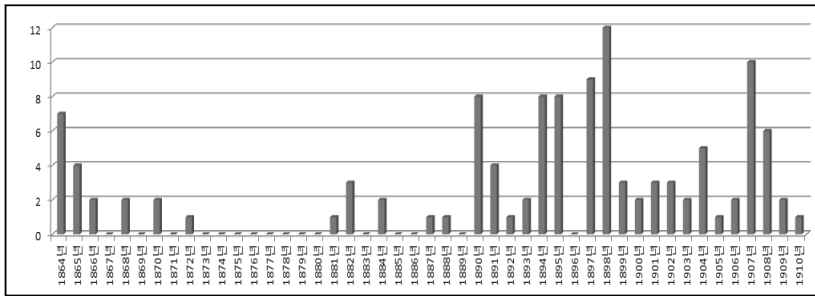
이상으로 고종·순종 시기 유신 복합어의 어휘 현상을 유교 경서 계열 복합어, 유신 전치어 계열 복합어, 유신 후치어 계열 복합어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전체 유신 복합어의 절반 이상이 이전 시기에는 보이지 않다가 고종·순종 시기에 처음 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시기가 역사의 변혁기로서 새로운 왕정의 시작을 갈망하는 사람들, 정치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자 하는 사람들, 다양한 분야에서 유신이 환기하는 새로운 변화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운데 외부적으로 일본의 메이지유신도 이 시기 조선의 정치 언어로서 유신의 어휘 현상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조선 말기 고종·순종 시기 유신 개념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도록 한다.

3. 유신 개념의 역사적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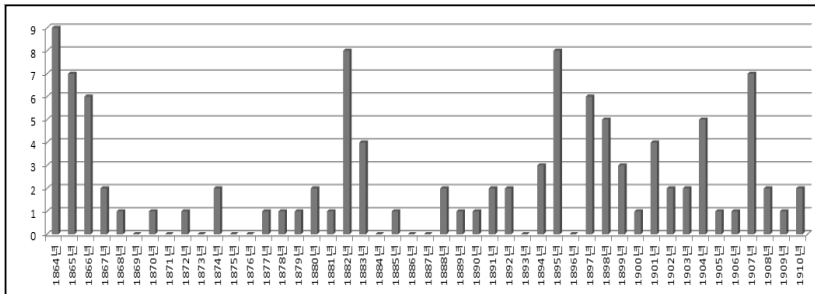
위에서 고종·순종 시기 유신 복합어의 구조를 분석하면서 각각 유교 경서 계열의 복합어, 유신 전치어 계열의 복합어, 유신 후치어 계열의 복합어가 고종·순종 시기 어떻게 분포했는지 연도별 추세를 살펴보았다. 이 시기 유신 개념의 역사적 전개를 논하기 위해 각각 이들 유형의 복합어의 추세를 그래프로 재현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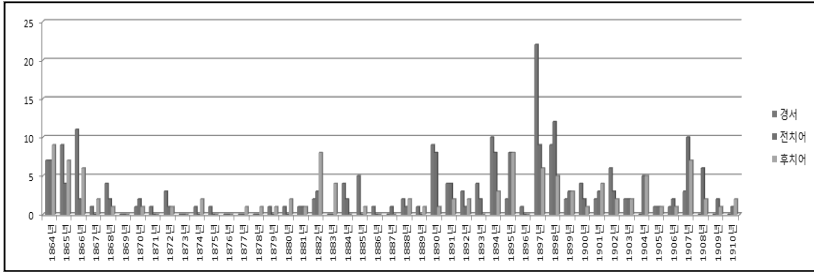
[그림 1] 고종·순종 시기 유교 경서 계열 유신 복합어의 빈도수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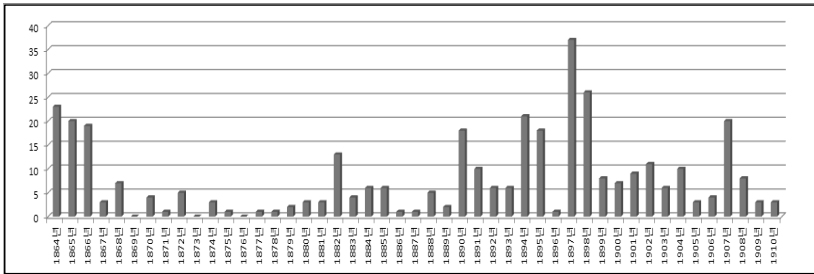
[그림 2] 고종·순종 시기 유신 전치어 계열 유신 복합어의 빈도수 추세.



[그림 3] 고종·순종 시기 유신 후치어 계열 유신 복합어의 빈도수 추세.



[그림 4] 고종·순종 시기 유신 복합어 각 유형의 빈도수 추세.



[그림 5] 고종·순종 시기 유신 복합어 각 유형의 빈도수 합산 추세.

[그림 1]에서 보듯 유교 경서 계열 유신 복합어는 대한제국이 선포된 1897년에 최다의 빈도수를 보였고, 고종 초기인 1865·1866년, 그리고 1890년·1894년·1898년에도 이에 버금가는 빈도수를 보였다. [그림 2]에서 보듯 유신 전치어 계열 유신 복합어는 대한제국이 선포된 이듬해인 1898년에 최다의 빈도수를 보였고, 순종이 즉위한 1907년, 그리고 1890년·1894년·1897년에도 이에 버금가는 빈도수를 보였다. [그림 3]에서 보듯 유신 후치어 계열 유신 복합어는 고종이 즉위한 1864년에 최다의 빈도수를 보였고, 임오군란이 발발한 1882년, 을미개혁이 있었던 1895년, 그리고 1865년·1866년·1897년·1907년에도 이에 버금가는 빈도수를 보였다. [그림 4]에서 보듯 전체적으로 유신 복합어가 최다 빈도수

를 보인 것은 대한제국 초기인 1897년과 1898년이었고, 고종 초기인 1864~1866년, 순종이 즉위한 1907년,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의 시기인 1894년·1895년도 이에 버금가는 빈도수를 보였다. [그림 5]는 [그림 4]의 추세가 정리되어 표현된 것이다. 위의 그래프의 각 추세에서 보듯 고종·순종 시기 유신 개념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시기는 정치적 격변이 있었던 해이다.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에 즉위했던 초기(1897년, 1898년)를 필두로 고종이 퇴위하고 순종이 즉위하여 유신을 국시로 정했던 시기(1907년), 신정왕후의 수렴청정이 끝나고 고종이 정치를 시작한 시기(1866년), 갑오개혁이 전개된 시기(1894년, 1895년), 고종이 처음 왕위에 오른 초기(1864년, 1865년) 등 고종, 순종 시기 중에서 정치적인 변화가 뚜렷했던 해에 유신 복합어의 빈도수도 이에 상응하여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유신 복합어의 이와 같은 추세는 유신이 정치 언어로서 전환기의 역사적 현실과 긴밀하게 상응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본래 정치 언어로서 유신의 고전적 권위는 유교 경서에서 유래하였다. 선왕을 계승한 사왕(嗣王)에게 새로 천명을 받으려면 덕을 새롭게 하라고 당부한 구절이 『서경』에 있었음은 앞에서 보았지만, 유신이 발화되는 특정한 시기로서 중요한 것이 후왕이 선왕을 계승하여 왕위에 올라 처음 정무를 시작하는 시기이다. 고종이 즉위한 후 ‘오늘은 전하 일원(一元)의 초복(初服)이니’ ‘천명의 돌아봄이 새롭다’는 구절⁴⁶⁾이나 ‘우리 성상(聖上)이 사복(嗣服)하자 나라의 복이 새롭다’는 구절⁴⁷⁾ 그리고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후 ‘천명이 새로워 원구단에 보위(寶位)를 올리니 성덕(聖

46) 『承政院日記』 고종1년 2월 10일 신사. “第伏念今日，殿下一元之初服也，受慈聖付畀之重，承祖宗熙洽之基，眷顧之天命維新，蕲向之人心益切，此誠我東方億萬年無疆之會也。”

47) 『承政院日記』 고종2년 1월 9일 을사. “領敦寧金興根疏曰... 迨我聖上嗣服，邦籙維新.”

德)이 가득 빛나 초원(初元)에 큰 복을 이었다’는 구절⁴⁸⁾은 이와 관계 있다. 고종 시기에만 보이는 ‘초원지정유신(初元之政維新)’이라는 어구는 단적으로 이를 가리킨다.

새로 즉위한 국왕에 의한 새로운 왕정의 시작을 유신과 연결시키는 용법은 다양한 상황에서 관찰된다. 1866년 2월 27일 고종 즉위 후 첫 번째 조참(朝參)이 열렸을 때, 조참은 고종이 즉위한 후 치르는 첫 번째 성대한 행사로서 최초의 국정 직접 총괄의 의미가 있었고, 조참에 참여한 신료들은 이 조참에서 ‘유신주명(維新周命)’, ‘여정유신(勵精維新)’, ‘수구유신(雖舊維新)’ 등 다양한 표현으로 ‘유신’의 일대 기회를 예찬했다.⁴⁹⁾ 고종의 이 조참은 즉위 후 지속된 신정왕후의 수렴청정의 종식을 상징하는 것으로, 신정왕후의 철령이 역사에 남고 고종의 친정으로 서정유신(庶政維新)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다.⁵⁰⁾ 고종의 왕정에 유신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했던 또다른 사건은 경복궁의 중건이었다. 경복궁의 중건은 그 자체로 ‘구방유신(舊邦維新)’의 의미를 전달했고,⁵¹⁾ 경복궁의 중건과 이어(移御)를 계기로 고종은 『서경』에서 말하는 ‘유신결덕(惟新厥德)’의 교훈을 생각해 경연에서 성학(聖學)에 진력할 것이 기대되었다.⁵²⁾ 아마

48) 『承政院日記』 고종34년 10월 2일 무오. “中樞院一等議官申檀疏曰, 伏以天命維新, 進寶位於園丘, 聖德彌光, 迺景錄於初元.”

49) 『承政院日記』 고종3년 2월 27일 정사. “永輔曰, 今日朝參, 卽我殿下親總庶政之一初盛舉也. 繼祖宗而踐位行禮, 進臣僚而詢事考言, 此誠又新湯德, 維新周命之一大機會, 臣不任慶祝萬萬...一愚曰, 今日朝參, 乃聖上一初之盛儀也. 奉慈聖六條之訓, 摠邦國萬機之政, 此正勵精維新之會...圭益曰, 今日朝參, 卽我聖上御極後, 初有之盛舉也. 承祖宗鴻大之業, 受慈殿燕詒之訓, 繼志述事, 端本正始, 莫不肇基於今日, 則今日卽我國家雖舊維新之一大會也...”

50) 『承政院日記』 고종3년 3월 28일 정해. “矧又東朝撤簾帷之儀, 事光簡冊, 聖上摠機務之聽, 庶政維新.”

51) 『承政院日記』 고종2년 4월 3일 정묘. “南寧尉臣尹宜善以爲, 法宮重建, 雖舊維新, 實基億萬年無疆之休, 舉國臣民, 欽仰攢頌.”

52) 『承政院日記』 고종5년 7월 4일 기묘. “顯裕曰, 大僚之爲聖學陳勉, 諄復懇摯, 臣無容更贅, 而顧今正衙重建, 法駕移御, 承祖宗積累之基, 啓社稷靈長之圖, 萬億

도 고종 자신은 흥선대원군이 하야한 직후 새로운 왕정의 시작을 열망했을 것이다. 1874년 1월 17일 춘당대(春塘臺)에서 열린 인일제(人日製)의 제목 ‘주수구방기명유신(周雖舊邦其命維新)’은 고종 친정의 개시를 알리는 상징적인 표현이었다.⁵³⁾

보통 국왕의 왕정에서 유신을 환기시켜 주는 일상적 요인으로는 일양(一陽)으로 상징되는 동짓날과 삼양(三陽)으로 상징되는 설날 같은 세시(歲時)가 있었다. ‘일양(一陽)이 회복되어 온갖 복이 새롭다’는 구절⁵⁴⁾ 또는 ‘곧 삼양(三陽)에 이르니 온갖 복이 새롭다’는 구절⁵⁵⁾이 그것이다. 더불어 신원(新元)의 첫 번째 차대(次對)에서 군주에게 ‘성덕유신(聖德維新)’을 환기하는 신하들도 있었다.⁵⁶⁾ 매년 찾아오는 일상적 세시와 더불어 드물게 찾아오는 역사적인 기념일도 유신의 다짐을 자극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1872년은 조선이 건국한 8주갑이 되는 해였는데, 이 해는 태조가 건국한 구기(舊紀)로서 ‘경명유신(景命維新)’의 때라고 생각되었고,⁵⁷⁾ 왕업의 유래와 ‘방명유신(邦命維新)’을 생각해 건국한 날 작헌례를 설행하게 하였다.⁵⁸⁾

天休，實始於茲，寔我殿下，新服厥命，惟新厥德之會，而今日急務，寔在乎一念慥慥，典於終始之學也。”

- 53) 『承政院日記』 고종11년 1월 17일 신유. “上命書題，詩周雖舊邦，其命維新，源命跪書讀奏，祖榮奉出懸之.”
- 54) 『承政院日記』 고종29년 11월 3일 정해. “炳始進前奏曰，一陽始復，百祿維新，此是亞歲令節也。聖體，若何?”
- 55) 『承政院日記』 고종15년 1월 12일 임술. “行左副承旨趙熙一疏曰，伏以三陽載屆，百祿維新.”
- 56) 『承政院日記』 고종26년 1월 25일 신미. “舜澤曰，今日卽新元初對也。迓休命而承景籙，聖德維新，聖化彌彰，舉國蘄望，有倍他時.”
- 57) 『承政院日記』 고종9년 1월 25일 경술. “淳穆曰，今年，卽我聖祖建國之舊紀，景命維新之會也.”
- 58) 『承政院日記』 고종9년 7월 7일 기축. “傳曰，是年是月十六日，卽我太祖大王建邦啓土之年若月日也。聖德神功，式克至于今日休，推王業之所由，撫邦命之維新，而顧小子，適遇此歲，益切永慕，當於伊日，親行南殿酌獻禮矣，該房知悉.”

고종의 왕정에서 유신이 뚜렷하게 역사적 실체를 획득하기 시작한 것은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이후였다. 조선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 두 변란을 고종의 ‘성신문무(聖神文武)’에 의지해 이겨내 나라의 천명이 새롭게 되고 나라의 복이 공고해졌다는 인식,⁵⁹⁾ 또는 수 년 이래 거듭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다가 종사가 다시 편안해져 천명이 새롭게 되었으니 역사에 유례가 드문 대업이라는 인식⁶⁰⁾이 그것이다. 이는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으로 대내외적 위기에 처했던 고종의 왕정을 다시 안정시키는 역사적 과제를 환기한 것으로, 이에 이르러 유신은 단순히 군주가 일상적으로 또는 관례적으로 자신의 왕정을 성찰하는 유교적 경구에서 머무르는 것에서 벗어나 특정한 역사적 실천을 암시하기에 이르렀다. 임오군란의 평정은 그 자체로 왕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역사적 자각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고, ‘일신(一新)의 치(治)’를 이루고자 하는 ‘경시유신(更始維新)의 초(初),⁶¹⁾ 또는 기강을 엄히 세워 경국(經國)의 급선무로 삼아야 하는 ‘재조유신(再造維新)의 날’⁶²⁾이라는 관념을 생성시켰다. 이는 임오군란 이후 조선 왕정의 회복이라는 현실적 과제와 이를 위한 실천적 개혁의 방향에서 유신을 현재적으로 사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유신 개념의 실천적 현재화가 임오군란의 평정을 계기로 본격화되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시간적으로 유신의 현재화를 지시하는 금(今), 방(方), 초(初)가 가미된 유신 복합어의 다음과 같은 추

59) 『承政院日記』 고종23년 10월 20일 기묘. “第伏念, 壬午之變, 甲申之亂, 此固千古往牒之所未有者, 而實賴我殿下聖神文武, 克底于定, 天地廓清, 宗社奠安, 邦命以之維新, 邦籙以之益鞏, 永有辭於天下萬世也.”

60) 『承政院日記』 고종 22년 9월 22일 정사. “弘集曰, 惟我殿下, 臨御二紀之間, 功德巍蕩, 無得而名. 至於數年以來, 洵經屯艱, 宗祐復安, 天命維新, 此誠往牒所未有之盛烈大業也.”

61) 『承政院日記』 고종 19년 11월 11일 계사. “此誠我殿下更始維新之初, 開張聖聰, 思得良算, 期欲成一新之治之意也.”

62) 『承政院日記』 고종 19년 11월 11일 계사. “伏願殿下, 今當再造維新之日, 嚴立紀綱, 以爲經國之先務也.”

세는 이를 적실히 알려준다.

[표 8] 고종·순종 시기 『승정원일기』에서 ‘금’, ‘방’, ‘초’와 결합한 유신 복합어구 일람

	유신 복합어구
今 + 維新	今當萬化維新之會(1864) 今宸化維新(1865) 今聖德維新(1865) 今日即我國家雖舊維新(1866), 今當再造維新之日(1882) 今當百度維新(1882) 今維新百度(1883), 今景命維新(1885), 見今百度維新(1894), 方今邦運維新(1895), 今節制維新(1897), 今百度維新(1897), 今當天命維新之會(1898), 我大韓今日維新之際(1899), 現今百度維新(1902), 今當維新之會(1904), 今我政教維新(1904), 今百度維新(1905), 際今維新之初(1907), 方今聖朝萬化維新(1907), 今에維新之秋를際하야(1907), 今於維新에(1907), 今於維新之際에(1907), 方今聖化維新(1907)
方 + 維新	方值百度維新(1882) 方今邦運維新(1895) 朕方勵圖惟新(1898) 方今聖朝萬化維新(1907), 方今聖化維新(1907)
維新 + 初	我殿下更始維新之初(1882), 值俗染維新之初(1894), 乃於維新之初(1895), 際今維新之初(1907)

위에서 보듯 ‘금(今)+유신(維新)’의 복합어는 고종 즉위 초기에는 만화(萬化), 신화(宸化), 성덕(聖德)에 머물렀으나 임오군란 평정 후 재조(再造), 백도(百度)로, 갑오개혁 기간 백도(百度), 방운(邦運)으로, 대한제국 선포 후 절제(節制), 백도(百度), 천명(天命)으로, 러일전쟁 이후 정교(政教), 백도(百度)로 확장되었고, 순종 즉위 후 만화(萬化), 성화(聖化)로 회귀하였다. ‘방(方)+유신(維新)’의 복합어는 임오군란 평정 후 백도(百度), 갑오개혁 기간 방운(邦運), 대한제국 선포 후 여도(勵圖), 순종 즉위 후 만화(萬化), 성화(聖化)와 결합하였다. ‘유신(維新)+초(初)’는 임오군란 평정 후 경시(更始), 갑오개혁 기간 속염(俗染), 순종 즉위 후 금(今)과 결합했다. 이처럼 ‘금(今)+유신(維新)’, ‘방(方)+유신(維新)’, ‘유신(維新)+초(初)’는 공통적으로 임오군란 평정(1882), 갑오개혁 기간(1894-5), 대한제국 초기(1897~8), 순종 즉위 후(1907)라는 역사적 시기를 유신 개념의 시간적 현재화에 관한 중요한 단락으로 제시한다. 앞서

고종, 순종 시기의 『승정원일기』에서 유신 복합어의 빈도수가 가장 높았던 시기가 대한제국 초기(1897~8), 순종 즉위 후(1907), 수렴청정의 종식(1866), 갑오개혁 기간(1894~5), 고종 즉위 초기(1864~5), 임오군란(1882)과 러일전쟁(1904) 등의 시기였음을 돌아볼 때, 고종 즉위 초기와 수렴청정 종식을 제외한 나머지 시기와 거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즉, 지금 또는 방금 또는 처음이라는 시간 단위가 입혀진 유신의 현재화가 적극적으로 나타난 시기는 전체적으로 임오군란 이후 유신이 가장 빈번하게 발화된 시기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개혁으로서의 유신의 의미를 강하게 함축한 ‘백도유신(百度維新)’이 ‘금(今)’ 또는 ‘방(方)’과 만나는 시점이 각각 임오군란, 갑오개혁, 제국 초기 등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는 점, ‘백도유신’은 고종 이전부터 간간히 사용되었지만 ‘금백도유신(今百度維新)’은 오직 고종 시기에만 보인다⁶³⁾는 점은 고종 시기 개혁의 현재성이라는 맥락에서 유신 개념의 정치화가 진행되는 양상을 알려준다. ‘방운유신(邦運維新)’은 숙종대와 정조대에도 쓰인 바 있지만, 역시 ‘금방운유신(今邦運維新)’은 오직 고종대에만 보이며, 특히 이 유신의 구체적 현실이 ‘중흥의 대업’과 연결된 것은⁶⁴⁾ 전례 없는 용법이다. 대한제국 선포와 함께 ‘방운유신’에 상응하는 ‘황운유신(皇運維新)’이 등장한 것도 주목할만하다.⁶⁵⁾ 아울러 ‘유신지초(維新之初)’ 역시 고종 시기에만 보이는 어구인데,⁶⁶⁾ 그 표현 방식이 유신 복합형으로 ‘경시유신(更始維新)’의 초

63) 『承政院日記』 고종 31년 7월 29일 계묘. “見今百度維新, 群彥彙征, 謀猷綜密之士, 才智開明之人, 濟濟布列, 不患不得”; 『承政院日記』 고종 34년 9월 28일 갑인. “爲官擇人, 何時不然, 而顧今百度維新, 四海想望, 尤宜慎簡百僚, 以恢一初公道, 以新一世耳目”; 『承政院日記』 고종 39년 9월 12일 기사. “現今百度維新, 儀無不備, 惟於宮壺之事, 偶有未遑焉.”; 『承政院日記』 고종 42년 4월 5일 정미.

64) 『承政院日記』 고종 32년 윤5월 24일 갑자. “方今邦運維新, 聖志奮發, 將以建中興之大業.”

65) 『承政院日記』 고종 23년 11월 12일 정유.

(初)'(1882)와 '속염유신(俗染維新)의 초(初)'(1894)를 거쳐 유신 단독형으로 '유신(維新)의 초(初)'(1895)와 '금유신(今維新)의 초(初)'(1907)로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⁶⁷⁾ 유신 단독형으로 '유신지초'라는 시간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유신 그 자체가 역사적 상황에서 특정한 정치적 함의를 획득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유신 단독형과 금(今)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최초의 용례가 '금당유신지회(今當維新之會)'(1904)이고⁶⁸⁾ 이후 고종이 퇴위하고 순종이 즉위하는 1907년에 이러한 용례들이 곧잘 출현한다는⁶⁹⁾ 사실은 갑오개혁 후 획득된 정치적 개념의 유신이 금(今)과 결합하여 이 시기에 재차 현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위에서 갑오개혁 기간의 '금방운유신(今邦運維新)'이 '중흥의 대업'과 연결된 기사임을 말했지만, 실은 이 기사가 나오기 4일 전의 기사에서는

-
- 66) 『承政院日記』 고종 19년 11월 11일 계사; 『承政院日記』 고종31년 8월 13일 정사; 『承政院日記』 고종 32년 1월 5일 정축; 『承政院日記』 고종 44년 6월 23일 임오 : '維新之初'라는 표현은 고종 시기 이전의 承政院日記, 그리고 실록 전체에서 찾을 수 없고, 문집 자료에서 드물게 '仁祖維新之初'라는 표현이 있다(趙綱, 『龍洲集』 권21 「贈領議政竹泉李公神道碑銘」).
- 67) 임오군란 평정 후 '일신의 치'를 도모하기 위한 '경시유신'의 초기라는 발상(『承政院日記』 고종 19년 11월 11일 계사), 동학농민운동의 와중에 지방 사회의 안정을 의미하는 '속염유신'의 초기라는 발상(『承政院日記』 고종31년 8월 13일 정사)은 유신의 고전적인 용례를 사용해 임오군란과 동학농민운동 같은 사건으로 야기된 혼란을 수습해 왕정을 회복하고 민심을 안정시키는 첫 시기라는 의미를 드러낸 것이다. 반면 유신의 초기에 장관을 묘선한다는 발상(『承政院日記』 고종 32년 1월 5일 정축)이나 지금 유신의 초기인데 재주 없이 함부로 자리를 차지한다는 발상(『承政院日記』 고종 44년 6월 23일 임오)은 유신 그 자체로 특정한 정치적 함의를 획득하게 되어 수식어 없이 단독으로 유신의 첫 시기를 드러낸 것이다.
- 68) 『承政院日記』 고종 41년 2월 13일 임술. “今當維新之會, 欲講治平之術, 凡用一人行一事, 必先審其公私之別.”
- 69) 『承政院日記』 순종 1년 7월 6일 을미. “今에維新之秋를際호야 風俗을 改良함이 最是急務라.”; 『承政院日記』 순종 1년 9월 19일 정미. “今於維新에 內閣大臣이 輪忠秉義호야 效勞俱著호니.”; 『承政院日記』 순종 1년 9월 19일 정미. “今於維新之際에 內閣大臣, 輪忠秉義, 優著勞蹟.”

고종 스스로 ‘짐이 작년 여름 이래 국정을 유신하여 독립의 터전을 열고 중흥의 대업을 세워 종묘사직에 맹세하고 팔도에 크게 유시하기까지 하였다.’는 칙령을 만날 수 있다.⁷⁰⁾ 이를 통해 유신의 역사적 시작이 1894년 여름에 시작한 갑오개혁으로 특정화되어 있으며, 유신이 지향하는 키워드가 독립과 중흥임을 알 수 있다. 고종은 단발 조칙에서 정치경장(政治更張)의 방안으로 정삭, 연호, 복색, 단발 등의 문제가 있는데, 정삭의 개정과 연호의 제정이 ‘중흥의 홍업(鴻業)’이며 국민이 복색 변경과 단발에 동참해 ‘유신정치(維新政治)’에 복종하라고 명하였다.⁷¹⁾ 이는 유신이 갑오·을미 두 해에 걸쳐 전개된 전반적인 체제 개혁과 관련된 것으로 중흥, 독립, 경장 등과 긴밀하게 얽혀 있는 용어였음을 말한다.⁷²⁾ 유신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경장개화(更張開化)’⁷³⁾ 또는 ‘구방개명(舊邦開明)’⁷⁴⁾의 직접적인 언급이 주목되는데, 이는 유신이 이념적 측면에서 전통 유교에서 이탈한 개화 또는 개명에 속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유신 개념의 정치화를 촉진한 것은 갑오개혁 기간의 유신과 더불어 대한제국 초기의 유신이었다. 앞서 유신의 고전적인 개념으로 은 탕왕과 주 문왕의 유신이 있었음을 말했지만,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어한 후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고전적인 유신이 빈번히 발화되었다. 개국 이후 오랜 기간 제후국을 자처했던 조선이 제국으로 변모한다는 것은 『시경』의 ‘주수구방, 기명유신’과 부합하는 유신의 체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제국으로의 국제 변경에서 기인하는

70) 『承政院日記』 고종 32년 윤5월 20일 경신. “朕惟昨夏以來，維新國政，肇獨立之基，建中興之業，至於誓告廟社，誕諭八方。”

71) 『承政院日記』 고종 32년 11월 27일 계해. “朕今此改正朔建年號，應五百年大變，卽朕家中興之鴻業，易服色斷髮，國人耳目之一新捨舊，而朕服從維新政治。”

72) 이것이 대한제국기 언론 매체에 甲午更張，甲午維新，甲午中興，甲午獨立，甲午改革 등 다양한 용어가 출현하는 배경이다.

73) 『承政院日記』 고종 32년 윤5월 20일 경신.

74) 『承政院日記』 고종 32년 3월 15일 병술. “迨當聖化維新，舊邦開明，”

예약과 법제의 혁신이 뒤따랐고, 따라서 이 사태는 고종의 황제 즉위를 의미하는 ‘천명유신(天命維新)’과 더불어 이에 수반되는 ‘백례구신(百禮俱新)’과 ‘백도개신(百度皆新)’을 포괄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조선이 이제 제국으로서 천하를 소유한다는 관념에 따라 ‘유천하(有天下)’에 합당한 새로운 국명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에 삼한(三韓)이 통합되어 하나의 천하를 창출했다는 의미에서 새롭게 발견된 천하로서 대한(大韓)을 제국의 호칭으로 삼았다.⁷⁵⁾ 이는 조선이 개국한 이래 500여 년이 지나 광무 원년에 이르러 천명을 받아 대황제가 되니 조선의 국명이 유신되었다는 인식을 낳게 하였다.⁷⁶⁾ 단적으로 ‘대한금일유신(大韓今日維新)’⁷⁷⁾ 또는 ‘아동방일초유신(我東方一初維新)’⁷⁸⁾이라는 어구는 대한제국기에 도달한 유신 개념의 정치화의 어떤 극점을 보여준다.

1894년의 체제 개혁, 1897년의 제국 선포를 거치며 유신은 이제 그 자체로 한국 사회의 특정한 정치사회적 변혁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를테면 ‘유신이래(維新以來)’라는 어구는 처음에 일본의

75) 『承政院日記』 고종 34년 9월 16일 임인. “上曰, 平順矣. 仍教曰, 欲與卿等有所議定者矣. 今於一初之政, 百禮俱新, 自今肇裡園丘之時, 宜用定有天下之號也, 大臣之意, 何如? 舜澤曰, 國家因箕子舊封朝鮮之名, 仍以爲號, 未始爲切當. 今於邦舊命新之日, 定有天下之號, 應合典則矣. 秉世曰, 天命維新, 百度皆新, 有天下之號, 亦宜新定, 自今伊始, 萬億年卜世祈永之本, 實在於此矣. 上曰, 我邦乃三韓之地, 而國初受命, 統合爲一, 今定有天下之號曰大韓, 未爲不可. 且每嘗見各國文字, 不曰朝鮮而曰韓者, 抑有符驗於前, 而有竣於今日, 無待聲明於天下, 而天下皆知大韓之號矣. 舜澤曰, 自三代以來, 有天下之號, 未有承襲于前者矣. 而朝鮮乃箕子舊封之號也, 堂堂帝國, 不宜因仍其號矣, 且大韓之號, 稽之帝統之國, 無襲舊者矣. 聖旨切當, 無敢贊辭矣. 秉世曰, 各國人之以朝鮮稱韓者, 其祥已兆於平昔, 而政待天命維新之日矣. 且韓字扁旁, 因朝字扁旁, 亦奇合而不偶矣. 此萬世開太平之應也, 臣不勝欽仰攢頌矣.”

76) 『承政院日記』 고종 35년 8월 19일 경자. “粵自開國以來五百餘年, 而至于光武元年, 統承天命, 爲大皇帝, 其命維新也.”

77) 『承政院日記』 고종 36년 4월 9일 병술.

78) 『承政院日記』 고종 36년 12월 29일 임인.

메이지 유신 이후를 가리켰지만,⁷⁹⁾ 이후에는 한국에서의 유신을 지칭하는 변화를 보였다. 즉, ‘유신 이래’ 제반 분야가 초창기인데 경비가 많아 나라 살림이 힘들었다거나,⁸⁰⁾ ‘유신 이래’ 육군만 설치하고 해군을 설치하지 않았다거나,⁸¹⁾ ‘광무 유신 이래’ 신학을 진흥했다는⁸²⁾ 언술이 그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의 유신은 ‘유신지효(維新之效)’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불완전하고 불철저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었다. 유신의 개막으로 간주되는 갑오개혁은 갑오년에는 일본의 내정 간섭 때문에 ‘객탈주권(客奪主權)’을 방지해야 ‘유신의 효’가 있을 것으로 진단되었고,⁸³⁾ 이듬해 을미년에는 고종의 ‘유신지정(維新之政)’이 ‘아법(我法)’을 전폐하고 ‘피제(彼制)’만 모방하는 것으로 치닫고 있어 ‘유신의 효’가 없고 ‘혁구(革舊)의 해’만 있는 것으로 비판받았다.⁸⁴⁾ 러일전쟁 이후에는 고종이 경장과 쇄신을 원해도 정부 신료들이 구습에 젖어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사육이나 채우고 있어 ‘유신의 효’를 희망할 수 없다는 비판론이 치솟았다.⁸⁵⁾

유신을 표방한 고종의 치세에 대한 총체적인 비판은 러일전쟁 이후 일진회의 결성과 반정부 투쟁에 즈음하여 제기되었다. 참정 신기선(申箕善)은 ‘회민(會民)의 요(擾)’가 유사 이래 들어보지 못한 비상한 변란임을 살피고 그 원인이 백년 적폐에서 기인하는 총체적인 국정의 붕괴와

79) 『承政院日記』 고종 28년 9월 21일 임오. “其時該使, 費數萬元銀, 多購日本維新以來緊要書籍.”; 『承政院日記』 고종 38년 3월 16일 임오. “日之爲國, 維新以來, 三十餘年.”

80) 『承政院日記』 고종 40년 2월 13일 무술. “維新以來, 百度草創, 經費浩穰, 支撥多方, 以致國計之艱絀, 日甚一日, 轉至於茫無畔岸之境.”

81) 『承政院日記』 고종 41년 1월 15일 갑오. “我國三面濱海, 所以舊式兵制, 水陸軍額, 參半經畫, 戰船餉械, 設置殷繁, 而維新以來, 但設陸軍, 全闕海軍, 大是缺典”

82) 『承政院日記』 순종 2년 4월 21일 을해. “光武維新以來로 此를 軫念호사 新學을 興호시고”

83) 『承政院日記』 고종 31년 10월 3일 병오.

84) 『承政院日記』 고종 32년 6월 24일 계사.

85) 『承政院日記』 고종 41년 6월 15일 임술.

이에 수반된 인민의 압제에 있음을 주장했으며, 견디다 못한 인민의 첫 번째 변란으로 ‘임술(壬戌)의 요(擾)’가 야기되었고 두 번째 변란으로 ‘갑오(甲午)의 난(亂)’이 야기되었으며, 그 후 국가가 처음 경장을 도모해 ‘유신(維新)’이라 호칭했지만 적폐가 개혁되지 않고 인심이 수습되지 않으며 대소 관원이 국법을 멸시하고 사욕을 챙기는 풍조가 예전보다 더욱 심해져 마침내 외세를 등에 업은 일진회의 반정부 투쟁에 이르렀다고 보았다.⁸⁶⁾

이런 의미에서 순종이 즉위한 후 ‘유신’을 국시로 삼아 종묘사직에 고한 것은 고종이 완수하지 못한 유신의 역사적 과제를 재차 새롭게 실행한다는 의미를 함축한 것이었다. 순종은 지난 정치가 문구만 있었고 실사가 없었다는 반성과 대경장·대변통을 추진하지 않으면 결코 민생을 구원할 수 없고 국가를 보전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담아 유신을 국시로 승격시켰다.⁸⁷⁾ 순종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유신을 국시로 정했음을 강조했고,⁸⁸⁾ 남순행(南巡幸)을 떠나 대구 행재소에서 각도 관찰사를 소견했을 때에도 민정의 요점이 ‘유신’과 ‘무실(務實)’임을 강조했다.⁸⁹⁾ 순종은 ‘유신’을 다른 말로 ‘광고(曠古)의 개혁’이라고 표현하였다.⁹⁰⁾

물론 순종의 ‘유신’은 동시기 한국 정치를 지배한 이등박문(伊藤博文)과 직결되어 있었다. 순종은 이등박문에게 그가 한국의 통감으로 부임하

86) 『承政院日記』 고종 41년 11월 25일 기해.

87) 『承政院日記』 순종 1년 10월 13일 신묘 : 응행조목은 다음의 6가지이다. 1. 上下一心에 君臣이 相孚하여 開國進取의 大計를 定케함. 2. 農桑을 勵하며 商工을 獎야 洽히 國富를 開發야 立國하는 基礎를 鞏固케함. 3. 紀綱을 振肅하며 積弊를 矯拔하여 中興의 偉業을 昌케하며 開國의 宏謨에 副케함. 4. 內政을 改善하여 臣民의 幸福을 進케하고 司法制度를 確定하여 冤枉함이 無케함. 5. 人材를 廣求하여 適地에 登庸케함. 6. 教育은 華를 捨고 實을 取함을 務야 國家緊要한 需用에 應할 途를 開케함.

88) 『承政院日記』 순종 2년 5월 17일 신축. ; 『承政院日記』 순종 2년 6월 25일 기묘.

89) 『承政院日記』 순종 2년 12월 21일 임신.

90) 『承政院日記』 순종 3년 9월 22일 무진.

여 고종의 ‘시정(施政)’을 열어 주었고 자신의 ‘유신대업(維新大業)’을 보좌했다고 칭찬했으며,⁹¹⁾ 자신의 ‘유신대업’이 이루어지는 까닭이 이등 박문의 ‘지도부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⁹²⁾ 이처럼 순종 스스로 밝힌 바 이등박문의 보좌와 지도에 따른 타율적이고 외세 의존적인 유신정치가 어디에 귀결할지는 자명하다. 1910년 순종은 자신이 즉위한 후 ‘유신정령(維新定令)’에 힘썼지만 오랜 적폐 때문에 만회하지 못했고 따라서 혁신의 효과를 보기 위해 차라리 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하니 대소신민은 일본의 ‘문명신정(文明新政)’에 복종하라고 칙유하였다.⁹³⁾ 결국 순종의 ‘유신대업’은 일본의 ‘문명신정’으로 넘어갈 운명이었고, 순종이 표방한 유신이란 사실상 일본을 통한 문명화 또는 문명을 통한 일본화와 등치되는 개념임이 자명해졌다. 유신의 이와 같은 정치화 과정에서 갑신정변과 갑오개혁의 주역들을 유신의 주체로 상정하는 새로운 발상이 가능해졌다. 김홍집은 갑을연간 대신으로 힘껏 유신을 도모했다고 평가받았고,⁹⁴⁾ 김옥균은 ‘유신의 수창(首倡)’이자 ‘문명의 선각’이라 평가받았다.⁹⁵⁾ 이는 고종 시기의 역사에서 유신의 계보를 갑신정변-갑오개혁으로 엮어 일본 영향 하의 갑신정변을 유신의 범주로 흡수하고자 하는 정치적 기획의 반영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유신’과 일본의 ‘문명’ 사이의 상호관계가 순종의 유신이 표방했듯 한국의 주체성이 소거된 타율적인 문명화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1906년 민영휘의 상소에서 일본이 의무교육을 실시해 3,

91) 『承政院日記』 순종 3년 5월 2일 경술. “貴公爵遵奉貴天皇陛下之大命, 以老成醫國之手, 負內外重望, 膺任統監, 前既啓沃朕父皇施政, 後復輔佐朕維新大業.”

92) 『承政院日記』 순종 3년 5월 19일 정묘. “蓋百政이 就緒하야 維新大業이 漸히 成홀 所以는 本是貴天皇陛下의 深厚한 聖旨에 藉하얏셔도 貴公爵의 指導扶植이 宜를 得흠이 안이면 豈能此와 如하리요”

93) 『承政院日記』 순종 4년 7월 25일 병인.

94) 『承政院日記』 순종 4년 5월 23일 을축.

95) 『承政院日記』 순종 4년 5월 23일 을축.

40년만에 부강을 이룩했음을 거례하며 한국도 속히 학구(學區)마다 학교를 설립해 유지의 협찬을 받아 ‘의무교육’을 실시하자고 주장한 것은 광무연간 한국 사회의 흥학론이 일본의 메이지유신의 역사적 경험에 주목해 이를 주체적으로 한국의 현실에 수용하고자 했던 단면을 보여준다.⁹⁶⁾ 민영휘는 ‘국가유신’의 기초가 실로 교육의 진작에 있다고 단언했는데, 여기서 ‘국가유신’이란 이미 성취된 일본의 유신과 이제 시작할 한국의 유신을 이중적으로 가리키는 바, 후일 ‘광무유신 이래’ 신학의 흥학이 추구되었다는 언술⁹⁷⁾을 통해 우리는 신교육의 확장이 고종의 유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을사늑약 이후 자강운동 기간 고양된 신교육의 열기가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참조해 ‘의무교육’ 실시의 촉구로 이어졌다는 것은, 그리고 이것이 ‘광무유신’으로 기억되었다는 것은, 고종대 유신 개념의 국면별 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종은 이미 갑오개혁과 제국의 선포라는 특정한 국면에서 유신 개념을 정치화시켰지만, 종국적으로 ‘광무유신’으로 기억된 것은 체제 변혁 또는 국체 변동과 관련된 정치사적 사건보다는 신학문과 신교육으로 대표되는 문명화 프로젝트였다.

4. 맺음말

이상으로 조선 말기 고종·순종 시기 『승정원일기』에 등장하는 조선의 유신 개념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 글의 관심사는 조선 말기 연대기에 등장하는 군신의 정치 언어에서 유신 개념이 어떻게 전개되고 변화하는가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었고, 구체적으로 고전적인 유신 개념과 조선

96) 『承政院日記』 고종 43년 12월 2일 갑자.

97) 『承政院日記』 순종 2년 4월 21일 을해.

의 전통적인 유신 개념, 그리고 조선 말기의 역사적 변화에 기인하는 유신 개념의 정치화에 주목하였다. 동아시아의 고전적인 유신 개념은 대표적으로 『시경』의 ‘주수구방(周雖舊邦, 기명유신(其命維新))’과 『서경』의 ‘구염오속(舊染汚俗, 함여유신(咸與惟新))’에서 발원하는 것으로, 공통적으로 천명을 받은 임금의 새로운 왕정으로 나라와 백성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했다. 유교적인 정치사상에서 유신은 군주의 수신과 인민의 교화라는 맥락에 놓여 있었다.

조선 말기 고종·순종 시기 『승정원일기』에 보이는 유신 복합어는 크게 『시경』이나 『서경』 같은 유교 경서 계열의 복합어(15종 142건), 그리고 그 밖의 일반적인 복합어 중에서 유신이 복합어의 앞에 배치되는 유신 전치형 복합어(34종 118건), 유신이 복합어의 뒤에 배치되는 유신 후치형 복합어(60종 109건)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들 각 유형의 복합어들은 고종·순종 시기 중에서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빈발하는 일정한 추세를 보였고, 또 조선 후기부터 고종·순종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출현하거나 또는 고종·순종 시기에 들어와 비로소 출현하는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다.

예를 들어 유신 전치형 복합어 ‘유신지회(維新之會)’는 조선후기부터 사용된 어휘이나 ‘유신지초(維新之初)’는 오직 고종대에 사용된 어휘이고, 유신 후치형 복합어 ‘백도유신(百度維新)’은 조선후기부터 사용된 어휘이나 ‘법도유신(法度維新)’은 오직 고종대에 사용된 어휘이다. 이들 유신 복합어는 빈도수로 볼 때 대한제국 초기(1897년, 1898년), 순종 즉위 초기(1907년), 고종 즉위 초기(1894년, 1895년, 1866년), 갑오개혁 시기(1894년, 1895년), 임오군란 시기(1882년) 등에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정치적인 변화가 뚜렷했던 해에 유신의 빈도수가 이에 상응하여 높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 언어로서의 유신의 성격을 여실히 보여준다.

본래 선왕을 계승한 후왕에게 천명을 받으려면 덕을 새롭게 하라고 당

부한 구절이 『서경』에 있었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유신이 발화되는 중요한 시기는 후왕이 선왕을 계승하여 왕위에 올라 처음 정무를 시작하는 시기였다. 새로 즉위한 국왕에 의한 새로운 왕정의 시작을 유신과 연결시키는 다양한 유신의 용법이 발견되는데, 특히 고종의 경우 신정왕후의 수렴청정이 끝나고 직접 국정을 총괄하는 상징적 행사로서 조참이 열렸을 때, 또는 경복궁이 중건되어 국왕의 이어가 실행되었을 때, 또는 흥선대원군이 하야한 직후 유신이 기대되었다. 물론 유신이 기대되는 상황은 관습적으로 동짓날과 설날을 맞이하는 세시풍속의 차원에서 조성되거나 조선 건국 8주갑을 기념하는 역사 기념의 차원에서 조성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신왕의 즉위나 본격적인 친정을 계기로 발화되는 유신, 그리고 세시풍속과 역사 기념의 차원에서 발화되는 유신이 그 자체로 고종대의 정치사적 맥락에서 특정한 정치적 함의를 지녔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오히려 고종대의 정치사적 맥락에서 유신이 그와 같은 구체적 함의를 지니게 된 것은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같은 전대미문의 내란과 쿠데타를 겪은 뒤의 일이었다.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의 위기를 극복하고 왕정을 재건하고 회복해야 한다는 역사적 과제와 직면하여 ‘경시유신(更始維新)’, ‘재조유신(再造維新)’을 자각한 것이다. 이것은 유신을 지금 구현해야 한다는 실천적인 현재화의 방향에서 유신을 사유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유신의 현재화를 지시하는 ‘금(今)’, ‘방(方)’, ‘초(初)’가 가미된 유신 복합어의 추세를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금+유신’ 복합어는 고종 즉위 초에는 덕과 화에 머물렀으나 임오군란 평정 후 재조, 백도, 방운, 천명, 정교 등으로 결합 어휘가 다양해졌는데 특히 온갖 제도의 개혁을 함축하는 ‘백도유신(百度維新)’이 ‘금+유신’의 형태로 임오군란, 갑오개혁, 대한제국 선포, 러일전쟁 이후 등 주요 정치적 변화 국면마다 빠짐없이 등장한 것이 주목된다. 고종시기에만 보이는 ‘유신지초(維新之初)’라는 어구 역시 임오군란, 갑오개혁, 대한제국 선포, 순종 즉위의 시기마다 빠짐없이 나와 유신의 현재화를 극명하게 전달했다.

그러나 유신의 현재화가 직접적으로 언명되고 유신의 정치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갑오개혁기, 대한제국 초기, 그리고 순종 즉위기 같은 체제 변혁의 시기였다. 고종은 갑오개혁으로 국정을 유신하여 독립의 터전을 열고 중흥의 대업을 세웠다고 밝혔고 조선의 신민에게 자신의 ‘유신정치(維新政治)’에 복종하라고 명하였다. 대한제국의 선포는 유신의 정치화를 위한 새로운 국면이었다. 황제국이라는 국체의 변화와 이에 따른 예악과 법제의 혁신이 수반되면서 ‘천명유신(天命維新)’이 거론되었고, ‘대한금일유신(大韓今日維新)’, ‘아동방일초유신(我東方一初維新)’ 같은 신조어가 등장하였다. ‘유신 이래(維新以來)’라는 복합어가 처음에 주로 메이지 유신 이래를 의미했음과 달리 이제 갑오개혁 또는 대한제국 수립을 지칭하는 변화를 보인 것은 이와 같은 유신의 활기를 반영하는 어휘 현상이었다.

그러나 ‘유신지효(維新之效)’의 견지에서 일본의 내정 간섭이나 구제의 전면 파괴, 그리고 신료의 구습으로 인해 고종이 창출한 유신은 여러 비판에 직면하였고, 특히 러일전쟁 이후에는 조선의 백 년 적폐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가 경장을 도모해 일시 ‘유신’이라 호칭했지만 국정의 붕괴와 인민의 압제는 그 이전보다 더욱 심해졌다는 총체적인 반성에 직면했다. 고종 퇴위 후 순종이 즉위하여 유신을 국시로 선포한 것은 광무 연간 철저히 못했던 체제 변혁을 급진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순종의 유신은 동시에 이등박문의 ‘보좌’와 ‘지도’에 따라 ‘유신대업(維新大業)’을 추구한다고 스스로 공언했을 정도로 외세 의존적인 타율적 유신이었다. 순종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순간 자신이 ‘유신정령(維新政令)’에 힘썼지만 효과가 없어서 차라리 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하니 대한의 신민은 일본의 ‘문명신정(文明新政)’에 복종하라고 명하였다. 결국 순종의 ‘유신대업’과 일본의 ‘문명신정’의 연속성에서 보자면 순종이 표방한 유신은 일본을 통한 문명화 또는 문명을 통한 일본

화와 등치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유신과 문명의 상호관계가 한국의 주체성이 소거된 타율적인 문명화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일본의 메이지유신의 역사적 경험에 주목해 한국 사회에 ‘의무교육’을 실시해 신학문과 신교육으로 문명화를 추구해 ‘국가유신(國家維新)’을 기약하는 주체적인 흥학론이 한국 사회에 존재하였다. 을사늑약 이후 자강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신교육의 확장을 통한 ‘국가유신’이 추구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후일 광무연간 신교육 확장을 내용으로 하는 ‘광무유신(光武維新)’이 기억되었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유신과 문명의 구도에서 유신의 정치화가 도달한 종국적인 국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이르러 조선의 유신은 유교 경서에서 유래하는 고전적인 유신에서 근대 문명을 지향하는 역사적인 유신으로 변모했다고 이를 수 있겠다.

참고문헌

『承政院日記』.

重野安繹 지, 『日本維新史』, 善隣譯書館, 1899.

羅晉 역, 『日本維新三十年史』, 廣智書局, 1903.

박삼현 외(2013), 『메이지유신, 동아시아의 기억』, 서울 : 지금여기.

이예안(2015), 「다카야마 린지로(高山林次郎) 외 11명, 「일본유신 30년사(日本維新三十年史)」, 『개념과 소통』 15,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_____(2014), 「대한제국기 유신의 정치학」, 『개념과 소통』 14,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허재영(2015), 「지식 수용의 차원에서 본 『황성신문』 「일본유신30년사」 역술 과정과 그 의미」, 『한민족어문학』 70, 한민족어문학회.

원고 접수일: 2018년 1월 16일

심사 완료일: 2018년 1월 31일

게재 확정일: 2018년 1월 31일

ABSTRACT

A Study on the Historical Concept of Yusin (維新) Around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Noh, Kwan Bum*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olitical conceptualization of Yusin (維新) during the reign of Kojong and Sunjong, the last two kings of the Joseon dynasty. The main focus is on the semantic order of compound terms that include ‘Yusin’ as they appear in the daily records of the government office Seungjeongweon (承政院). The changing concepts of Yusin in those records can be categorized and distinguished in the following ways: the typical concept of Yusin as it originated from the Confucian classics, its political implications in the conventional practice of the historical monarchy in Joseon Korea, and its ultimate conceptual modernization that accompanied the political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ancient-regime itself. Ultimately, it is concluded that a change of meaning from ‘a new beginning of a new Confucian politics’ to that of ‘a new modern civilization’ characterizes the historical concept of Yusin in the last period of Joseon dynasty.

* Associate Professo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